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6년 9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42호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楓 | 편집주간: 許 璣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AFS: 060-004-0011
영어: 협력·영광 | www.snua.or.kr

<2학기 장학금 수여>

‘겨레와 함께 미래로’ 향한 밑거름되길...



본회는 지난 8월 22일 열린 2006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재학생 1백12명에게 2억6천만8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2면>



2005학년도 후기 졸업식

<관련기사 20면>

올해는 10월 14일 **토**요일에 만나요!
흠커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모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제28회 흠커데이가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오는 10월 14일 토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하여 그동안 잊고 지나면 선 후배·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교의 품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 | |
|---------------------------------|--------------------------------------|
| △일 시: 2006년 10월 14일(土)
오전 9시 |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朴世源교수 CD) 등 |
|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첨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
|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 가족 | △문의전화: 02)702-2233 |
| △참가비용: 없음 |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관악춘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서러운 일도 드물 것이다. 한때 농촌에서 살던 밀천인 소를 팔아 대학을 다니다에서 ‘牛欄客’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은 요즘 신조어로 ‘無錢有學 無學無學’이라는 게 있다. 총명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제대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장학금

제도다.

마침 서울대총동창회가

최근 재학생 1백12명에게 금년 2학기 장학금 2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의 장학금을 합하면 3천7백51명에게 총 51억2천4백86만원(각 단과대학 동창회 지급액은 불포함)이 지급됐다고 한다. 동창회와 회원 모두의 모교 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한 헌신의 결과로 평가하고 싶다.

얼마 전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에 한국대학은 한 곳도 들지 못했다. 연구실적과 국제화 수준을 기술했다는 평가 순위에 따르면 100대 글로벌 대학 중 75개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대학이다. 국제 과학논문색인(SCI) 논문수로 따지면 서울대는 대학랭킹 30위, 국가랭킹 6위로 연구실적 자체는 크게 뒤지는 수준은 아니다.

결국 초라한 국제화 수준이 글로벌 경쟁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대학에 비해 열악한 재정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장학금을 늘려서라도 외국과의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불러들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장학금을 포함한 학교발전기금은 하버드대 2백59억 달러, 예일대 1백52억 달러, 스탠포드대 1백24억 달러이지만 서울대는 고작 3억 달러 수준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어로 하는 강의 비중도 늘려야 한다. 모교가 영어강의 비중을 높였다고 했지만 지난 1학기 영어강의 비중은 고려대(30.9%), 연세대(18.1%)보다 훨씬 낮은 4.7%였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

은 모교는 지금 ‘겨레와 함께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창학’을 앞두고 있다.

林光洙회장의 제21대 총동창회 집행부가 새로운 각오로 협치에 출범한데 이어 제2의 창학을 선도할 李長茂총장제가 들어섰다. 30만 동문들의 숙원사업인 장학발달이 연내 착공을 가다리고 있으며 건립기금 목표액 3백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장학빌딩이 건립되면 그 운용기금으로 모교 교수들에게 연간 18억원의 연구비와 장학금도 지급의 4배인 20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우리 다들께 장학사업에 힘을 모아 제2의 창학에 나서자.

(徐玉權은설위원)

‘제2의 創學’에 나서자

특별 인터뷰

동문을 찾아서

하제의 동문

만든 사람 본설위원 金哲洙, 朴世源, 林炯斗, 南仲九, 金鎮興, 李樹均, 安炳漢, 丘丹煥, 宋鎮興,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南, 李元龍, 金鍾勳, 文昌賢, 金仁基, 徐玉權, 高永才, 李元慶, 姜天錫, 鄭基永, 朴時龍, 辛京烈, 尹在錫, 鄭世浩, 李東植, 朴聖龍, 曹炳品, 朴穆虎, 許英堯, 金玄浩, 鄭興賢, 李東官, 地在錫, 金鎮興, 李容式, 李培起, 鄭恩浩, 蔡耕玉 편집장 安美賢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朴賢植, 黃교부장 金千鶴

“전문성·도덕성 갖춰 세계로 눈 돌리자”

본회·단과대동창회 올해 장학금 8억6천여만원 수여



林光洙회장이 장학생들에게 각각의 전공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2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6년 2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모교 재학생 1백12명에게 2억6천만8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2006년 1·2학기 장학금으로 본회가 2백33명에게 5억2천3백98만1천원을 수여했으며,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가 1백89명에게 3억4천5백42만3천원을 전달함으로써 올해 모교 재학생 총 4백22명에게 8억6천9백40만4천원치의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본회 許 堉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정직과 성실의 도덕성을 갖추고, 세계 속으로 항상 눈을 돌려 여러분의 그릇을 더욱 크게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격려사에서 "이제 모교는 도약의 출발대에 다시 섰다"며 "많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영광스러운 서울대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으니 동문들의 너그러운 성원과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학생을 대표해 鄭維雄(전기공학부 2년)군은 "푸르름을 간직한 나뭇잎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서 세계 속에 한국을 대표시키고 선배 동문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서울대인이 되겠다"고 답사했다.

이어 모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金榮相(성악98·03)동문이 金榮相(기악06일)양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곡 '내 마음의 갈뿔'을 축가로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振상임부회장, 尹勳煥·李海運·崔斗衡·郭永福·孔大植·洪性大·李海均·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明泰峯·鄭維雄·申



모교 李長茂총장이 장학금을 전달하여 격려했다.



孫一振상임부회장 장학금 수여



李政宰학생회장 장학금 전달



郭永福특기장학금 수여



金榮相·李志鎭특기장학금 수여

明奎·金鎭順이사, 朴英俊이사, 許堉사무총장, 李世鎭경역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李長茂총장, 李政宰학생회장, 보건대학원동창회장 姜美求회장, 수학과동창회장 金永煥회장, 양치학원 金鎭熙이사장, 양천장학회 金鎭熙이사장, 백림조세연구원 李秀範원장, 상영무역 李鎭基사장, 월드조인트 차장 朴相事장, 이우메타시스 金鎭均대표, 일성 李鎭煥고문, 영교테크놀로지코리아 金鎭雄고문, 기전외대 길병원 李泰熙원장, 삼양정수공업 張明熙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 단과대동창회 장학금 92명에 1억7천여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俞敏子)=6명:3백50만원 ▲법대동창회(회장 李載善)=16명:3천1백31만9천원 ▲사대동창회(회장 林香淳)=4명:8백34만원 ▲상대동창회(회장 洪振榮)=41명:8천71만1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鄭英彰)=4명:8백50만8천원 ▲약대동창회(회장 李金器)=5명:5백만원 ▲음대동창회(회장 徐桂淑)=1명:3백34만5천원 ▲지대동창회(회장 白純之)=4명:1천2백만 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河斗鳳)=4명:1천만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2명:3백만 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崔秉璵)=3명:9백만원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全奭煥)=2명:1백50만원 (表)

2006년 2학기 특기·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소)

장 학 회	설 립 자	수 여 자	장 학 금
洪性大특기	洪性大(수학57-63) 상산학원 이사장	林炳龍(농경제학4년) 崔芝源(법학1년) 蔡하은(인문계열1년)	2,000,000 2,000,000 2,000,000
연세특기	송桂淳(법학54일) 연교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金泰昌(성경과학3년) 李周雄(사회과학1년)	2,751,000 2,457,000
李吉女특기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	韓智賢(디자인2년) 方美惠(인문계열1년)	3,125,000 2,098,000
吳東英·金鎭淑특기	吳東英(조선학54일) 한국과학21술원 명예교수 金鎭淑(치위대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沈重賢(치위대학원2년) 金東濬(치위대학원1년) 申正植(치위학4년) 朴玟珠(치위학3년)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張世一특기	張世一(전기공학59-63) 일성전자-머머 회장	鄭瑞珠(바이오조결1년)	2,612,000
朴桂鎭특기	朴桂鎭(무역학69-74) 중국 수산기 총재	鄭一玉(경제학4년)	1,858,000
韓鎭淑특기	故 韓鎭淑(간호51-54) 前대원21팀 재정위원장	郭炫京(간호학2년)	2,000,000
鄭八道·李鎭基특기	鄭八道(AP 171) 코리아엔지니어링 회장 부인 李鎭基여사	金鎭源(경영학4년) 金일배(경영학4년) 金秀玄(경영학3년) 金鎭鎭(치위학3년) 張永實(원자핵공학3년)	1,509,000 1,858,000 2,051,000 2,576,000 2,576,000
李金玉·黃海根특기	黃海根(토목공학54-60) 동일기술포서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崔芝榮(법학12년)	2,051,000
李鎭基특기	李鎭基(경영학69-73) 상영무역 사장	金希怡(경영학4년) 金熙賢(기공학3년) 李榮祐(법학1년)	1,858,000 2,576,000 2,098,000
鄭鎭圭특기	鄭鎭圭(화학공학48-52) 신원정보산업 이사장	金榮淑(기공학 박사) 朴成泰(기공학 석사) 鄭鎭圭(컴퓨터학 석사)	2,000,000 2,000,000 2,000,000
化學科특기	화학과동창회	鄭鎭敏(화학2년)	2,511,000
金榮順·李志鎭특기	金榮順(AMP 471) 한국기노 이사 이름 李志鎭(의학77-83) 모교 도야 정형외과 교수	申빛나리(법학3년) 李鎭韓(법학2년) 金舒榮(의학2년) 玄貞順(의학2년)	1,000,000 1,000,000 2,000,000 1,000,000
郭永福특기	故 郭永福(대학원70졸) 전교도 지칠학과 명예교수	金光美(지구환경4년) 李龍鎭(지구환경3년)	1,077,000 1,097,000
林光洙특기	林光洙(기공학48-52) 임광호전 회장	朴麗圭(지구과학3년)	1,500,000
吳仁鎭특기	吳仁鎭(행정학68-62) Philip Investment 회장	朱瑛姬(경제학2년)	2,051,000
鄭鎭基특기	鄭鎭基(화학공학72-76) 도야이 화학회사 이사	吳明煥(화학공학4년)	2,536,000
郭永福특기	郭永福(토목공학56-60) 도화종합기술포서 회장	金東佑(경영학2년) 沈鎭大(조선학2년)	2,051,000 2,576,000
李海運특기	李海運(행정학51-55) 한국우드윅 회장	金弘運(법학1년)	1,500,000
朴桂5父子특기	故 金鎭泰(법학43-47) 前법제처장-연호사 金在承(법학2년)	李鎭俊(의학3년) 趙李珍(법학3년) 金在承(법학2년)	4,296,000 2,051,000 2,051,000
張鎭基특기	張鎭基(토목공학46-50) 삼양정수공업 회장	金正鎭(지구환경2년) 孫慧賢(지구환경2년)	2,576,000 2,576,000
李元鎭기금	李元鎭(농성물학58-63) 한신이씨(보통구 회수회장)	林惠珍(국사학3년)	1,000,000
崔南會기금	崔大 崔公賢의 출신 동문	鄭鎭敏(치위대학원2년)	1,000,000
李世鎭기금	李世鎭(행정68-73) 본회 명예사무총장	金昌希(전문학 박사)	3,320,000
郭東英특기	郭東英(법학61-65) 변호사	金榮安(사법과학4년)	2,511,000
保健大學院특기	보건대학원동창회	金秀貞(보건학 석사)	3,161,000
數學科특기	수학과동창회	金鎭鎭(수리과학4년) 朴相賢(수리과학4년) 申亨鎭(수리과학4년)	1,000,000 1,000,000 1,000,000
金鎭淑특기	金鎭淑(경제학68-70) 양천장학회 이사장	徐振鎭(지구환경 석사)	2,000,000

장학발딩 건립기금 출연

金正澈·金正湜형제 1억 쾌척

사업도 함께·장학회 설립 공동으로



金正澈동문



金正湜동문

지난 8월 4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澈(건축52-56) 명예회장과 김정湜(건축54-58) 회장이 공동명의로 본회에 장학발딩 건립기금 1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 3천만원을 보내왔다. 형제인 김정澈·金正湜동문이 출연한 기금은 장학발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정림건축(가칭) 특기장학회' 명의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金正澈동문은 "평소 정림건축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기독교단체인 해비타트에 참여하는 등 사회기여 활동을 해왔다"며 "내년이면 우리 형제가 정림건축을 설립한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모교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래 남동생金正湜동문이 모교 공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김정澈동문은 "저는 디자인분야, 동생은 구조분야에 재능이 있어 둘이 콧바를 이뤄 건축회사를 설립하면 더 없이 좋겠다"고 생각해 같은 길을 걷자고 권유했다"고.

서울시 건축상·대한 건축사협회상·한국건축대상 등 다수의 수

상경력에 보유한 두 형제는 개인적으로도 학생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정澈동문은 한빛누리 재단을 설립해 어린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정湜동문은 젊은 건축가를 지원하는 정림문화재단을 만들어 지난 8월 25일 제2회 건축가상을 시상했다.

본회 장학발딩에 대해 김정澈동문은 "모교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동창회 관에도 훌륭한 세미나실 등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보는 사람마다 '참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安勳동문 5천만원 약정

최근 安勳(수의학53-57)동문이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약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1천만원을 보내온 안동문은 2009년까지 매년 1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앞으로 장학발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安勳특기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表)

洪性大 관악회 상임이사(상산고 이사장)

'수학의 정석' 발행 40주년

바이블 다음으로 많은 부수 발행

수학 분야의 바이블로 통하는 '수학의 정석'이 지난 8월 31일로 발행 40주년을 맞았다. 저자인 전주 상산고교 洪性大(수학 57-63 본회 부회장·재단법인 관악회 상임이사)이사장(사진)은 "입시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수학의 기본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며 "앞으로도 1백년 이상 사랑 받는 참고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洪이사장은 대학 재학시절 과외를 하면서 변변한 수학참고서가 없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쉬운 참고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3년간 외국의 수학관련 자료를 모아 66년 8월 '수학의 정석'을 첫 출간했다. 이 책을 펴낸 성지출판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학의 정석'은 총 3천7백99만권이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



록이다. 홍이사장은 81년 세워 지립형사립고교로 지정된 상산고교에 지금까지 1천억원 가량을 출연했다. 또 98년 사재를 출연해 모교에 초현대식 상산수리과학관을 건립 기증했으며 본회에도 특기장학금으로 10억원을 약정하는 등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2회 동문 골프대회' 집행위원회

분야별 위원장 선임·협찬금 모금 협의

본회는 지난 8월 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2회 동문 골프대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 대중의 골프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들이 더 통치고 단합해야 한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지난 해부터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 대회는 참가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동창회 일변에산은 손대지 않고 참석자 회

비와 광고·협찬만으로 진행하는 등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회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신임 李長茂총장의 취임 축하도 겸해서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동문 골프대회 집행위원회의 공동회장에 (주)대경徐廷和회장, 경원대 李吉女총장, CJ를 孫京權회장을 선출했다.

또 기획위원장에 일진그룹 許鎭

奎회장, 재정위원장에 참촌 金光石회장, 섭외위원장에 우리들병원 河權益명예원장, 홍보위원장에 화정명회재단 南仲九이사장, 여성위원장에 청이치과병원 金謙敬이사장, 경기위원장에 고려대 朴榮敏교수, 간사에 朴英俊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실시일반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다른 대동동창회 골프대회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뒤지지 않은 수준 높은 대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徐廷和부회장이 서명료를 후원한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勳煥·李海濤·朴熙伯·崔斗衡·洪性大·孫京權·河權益부회장, 朴英俊간사, 南仲九·金仁奎는섭위원, 朴顯鎭·金대동원회 부회장, 徐桂源대동원회장, 金光石AMP동창회장, 呂東興AMPFRI동창회장, 辛秉熙GILP동창회장, 金有煥AMP동창회 골프회장, 朴榮敏동문골프대회 경기위원장, 許璠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贊)

“UN사무총장 되면 개혁, 불신 제거에 앞장 서겠다”

외교통상부 潘基文장관 특별 인터뷰

외교통상부 수장이자 제8대 유엔 사무총장 후보인 潘基文(외교63-70)장관은 최대 외교현안인 한미FTA 체결, 북한 인권문제 해결, 한일관계 개선 등을 위해 숭고한 임무를 보내고 있다. 그런 틈을 내 8월 26일 토요일 저녁 본보 李東寅논설위원과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담: 본보 李東寅논설위원(동아일보 논설위원)

— 개인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4일 안보리의 제1차 예비투표 결과 나오면서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2표를 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인도, 태국, 스리랑카에서 후보를 배출했는데, 아시아에서 사무총장이 나오는 것은 확실한가요.

“규정이나 원칙에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나올 차례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유엔의 60년 역사에서 아프리카 출신인 부트르스 갈리리와 코피 아난이 15년 동안 사무총장직을 수행했고, 대부분 EU회원국으로 가입된 동구와 파에서도 아시아 차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 싱가포르의 고혹룡 전 총리가 잠재적인 다크호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고혹룡 전 총리가 국제적인 명성으로 봐서 유력한 후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싱가포르 정부로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혹룡 전 총리도 후보에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주제 싱가포르 대사가 호주 신문에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의중이 결정적일 텐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상임이사국은 자국의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12표를 받은 것을 보면 5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개 자기 나라와 후보 국가와의 관계, 자기 나라와 후보 개인의 관계, 또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을 보고 뽑으니까 저로서는 그 나라들이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해 보는 거죠.”

—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자주 노선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후보 나라의 대외정책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도 강경과 약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민주사회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시장경제를 실시하는데다가 유엔이 추구하는 이성과 목표를 실현한 대표적인 나라라는 것이 강점이에요. 반면에 분단국이라는 점과 북한의 핵문제·인권문제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단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각합니다.

두 번째는 각 기관간의 coordination(조정)입니다. 제한된 인력과 재원을 어떻게 집중적이며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숙제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불신을 제거해 harmonize(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엔이 큰 조직이기에 서로의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조직체든지 구성원간에 불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무총장이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입니다. 경제개발이

“한미동맹 약화는 절대 없다” ‘정직=최상의 정책’ 늘 강조

로 위협을 가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북핵 문제의 경우 6자 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비록 느리지만 별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인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 성급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무총장이 되시면 어느 부문에 중점을 뒀던 일을 운영할 생각인지.

“첫째는 유엔의 개혁입니다. 60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 유엔 사무국이 비대해지고, 직원유리도 없고,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사명감도 없고, 전문성이 약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윤리관을 제고시킬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

각 되고, 사회가 평온하면 분쟁이 잘 안 일어나는데, 워낙 절대적으로 빈곤한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개발문제가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 국제기구들을 보면 ‘철밥통’ 같은 인상을 많이 줍니다. 한번 들어보면 안 나요. 급여는 높은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까지는 그런 비판이 없다가 최근에 ‘oil for food(식량조달을 위한 기름판매)’ 스캔들이 생겨 고위관리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등 유엔의 권위에 많은 손상을 입혔죠. 그러니까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많은 겁니다.”

— 유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원만 해도 4~5만 명이 되죠. 평화유지군은 8만명이고요.”

— 연간 예산은.

“25억 달러 정도죠. 물론 평화유지군 예산은 땀 겁니다. 보통 1년에 평화유지군에

50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정규 분담금과 평화유지군 분담금을 합해 1억 달러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많이 내고 있죠.”

—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대국 순위와 같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은 분들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전 세계적으로 내게 돼 있는 거죠.”

— 유엔의 3대 지주(pillar)인 안보, 개발, 인권문제가 북한과 직결돼 있는데요.

“그동안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한반도 문제에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꽤 노력을 했어요. 본인이 남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남한만 두 번 방문했죠. 그 대신에 자신의 특사를 북한에 몇 번 보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죠. 만약 제가 사무총장이 된다면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 유엔 총회 의장 비서실장을 지낸 경험 이 도움이 되셨나요.

“전인 韓昇洙장관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유엔 총회 의장으로 계실 때 비서실장을 했는데, 지리한 우리 측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접촉을 했죠.”

— 개인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리버 패터슨 여사(90세)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1962년 고3시절에 미국 적십자사에서 세계 청소년 적십자 대표단을 초청했어요. 그때 제가 영어시험을 봐서 운이 좋게 학생 대표로 선발됐죠. 그 후 한국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본대에서 일주일 정도 홈스테이하게 된 거죠.

그때에 그 분이 50년 이상 계속 같은 집에서 사신 거예요. 저도 물론 의무부에 근무하고 있어서 주스가 일정했고, 대학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주는 못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드려온 거죠. 그리고 사실 홈스테이할 때 인내를 해주셨던 포로스턴 둘과 여사와의 연락을 하고 있어요. 워싱턴에 살고 계시는데 주미 공사실에 보셔서 신사도 같이 했고, 장관이 되고 나서 찾아 뵈곤 했죠.”

— 학교시절에 영어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방 고등학교(충주고교)를 다니고 있어서 영어를 잘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습하는 편이었죠. 또 남시에 새로 있는 충주비료공장에 외국인 직원이 있었습니까. 우연히 그 사람들과 알게 돼 회화연습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됐죠.”

— 외교관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학생 대표로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신문기자들이 물어췄고, 외국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워싱턴에 가서 캐나다 대령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서울대 외교학과에 지원한 겁니다.”





- 대학 재학시절 기억에 남는 스승은,

“李用熙교수님, 朴俊圭교수님, 서울대 총장을 지내신 朴憲植교수님, 문교부 장관을 하였던 孫秉世교수님, 金容九교수님. 또 미국에서 또 돌아오셔서 신선한 충격을 주셨던 ‘스타일리스트’ 盧廣福교수님도 기억이 납니다. 盧교수님은 위에 국무총리를 지내셨지요.”

朴俊圭교수님은 외교사 시간에 일본과의 관계, 민비 사해 등을 강의하면서 흥분해서서 울분을 토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네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한일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씁쓸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李甲成선생님의 자제였던 李用熙교수님은 국제정치는 물론 동양 미술 등에도 조예가 깊으셨어요. 李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는 다른 교수님들이 학부생과 함께 강의를 들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이셨지요.”

“한동안 ‘서울대 폐교론’, ‘공준화’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민선으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독단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과의 interaction(상대대화)을 통해 신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울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대학이기에 적극 발전시켜 세계 속에 두각을 나타내도록 북돋워야 합니다. 대학의 특성을 잃고 평준화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장래님 재학시절은 어땠습니까.”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와 지금은 면학 분위기가서 전양자입니다. 우리 때는 술 적히 말해서 공부하는 안 한 셈이요. 책을 읽은 양이나 범위는 우리가 훨씬 적어요. 지금 학생들은 훨씬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지식을 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학문이나 사물의 이치·원리 등을 철학적으로 깊이 분석했어요. 지식 그 자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다녀오셨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거기서는 사물을 분석해서 보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지식보다는 analytic(분석적)한 approach(접근 방법)를 배우는 거죠. 이것은 단순지식과 달리 한번 배워 놓으면 평생 가는 거지요.”

“재미난 중에 모교 출신이 있으신지.”

“아들(우원)이 2001년에 공대 기계항공공학부를 나왔죠. 한 달 전까지 LG CNS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미국 UCLA에서 MBA코스를 보기 위해 떠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는 딸(현희)이요 이은희(가) 케네디(가) 로비)에서 유네스코 P3급 전문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살인죄인 입장을 소회해 내고, 폭탄주 10잔 이상도 마실 정도의 체력이지만 특별히 하는 운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 건강관리 비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장 궁금합니다. 제가 운동선수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끝났어요. 대사로 있을 때는 주일에 골프를 하곤 했었는데, 장관을 하면서는 못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사에 좌절을 내면 신경과 소화에 영향을 줘 사실상 건강

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보고 처리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얘기를 하죠.”

“국내에 계시는 시간보다 해외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죠.”

“아직까지는 반반입니다. 9월에는 25일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그 나라와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도 속직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현안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전지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인해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의 약화는 절대 아닙니다. 한미간 연합방위대세를 확고히 해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정된 국력, 국민들의 지극심 등에 발바탕을 두고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자진감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요. 또 미국 정부도 누차에 걸쳐서 이제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좀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혹시 걱정하실 수 있는 정보보호의 약화라든지,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철수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대로 없을 겁니다. 한반도에 어떠한 경우에도 긴밀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입각해서 이것이 이행돼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는 언제쯤이 적기라고 보십니까.”

“현재 정부에서 2020년까지 중기 국방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2년이 되면 우리가 정보획득 능력과 출력적인 자주 국방태세를 충분히 갖추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2012년을 마라추에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 한다는 현재 국방·외교당국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2009년이라는 시기를 제시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토록 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물론 미국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때문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10개국 외교장관 회담 등에 북한이 너무 비타협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좋은 기회를 계속 외면하는 상황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자주 6자 회담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외교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지난 6월 유엔에 처음으로 참정된 인권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리파, 미국, 서방 선진국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북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남북대화, 교류협력도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의 인권도 개선해야 되는 상당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느 한 면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잘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에 대해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초에 일본에 가서서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만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아는데.”

“아베 관방장관을 만나 정확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한일간의 협력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또 역사인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장관은 일본도 역사문제를 겸허하게 대해야 된다고 오히려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여권발급 등 영사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여권발급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해 드린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안을 기존의 부처발급에서 사전전자사식으로 좀더 보완된 제도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각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근무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하고 발급 창구도 두 군데씩 더 증설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방책보다 좀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생체인식정보를 들 수 있는 여권을 개발해 우리 국민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월에 개최된 아세안회의에서 제가 라이스 국무장관한테 생체인식정보가 담긴 여권 샘플 2개를 일부러 제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모교가 개교한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교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동문들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후배들도 그것을 계감으로 삼아 많은 발전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대생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학문적인 소양과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가 세계 속의 대학교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문들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외교학과 동창회 상임이사, 총동창회 이사로 있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안영환기자)

비료공장 외국인 직원과 영어회화 연습

케네디 대통령 만남 후 외교관 꿈 키워

정도 해외에 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비서관·보좌관 등 수행팀을 세 번 정도 바꿔야 해요. 보좌관들은 계속 따라 다닐 수 없으니까요.”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기문의 반만쯤만 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외교화이탈가 후배 외교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원칙이 있다면.

“배사를 겸허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직이 최상의 정책(Honesty is the best policy)’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만나면 믿음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때문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10개국 외교장관 회담 등에 북한이 너무 비타협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좋은 기회를 계속 외면하는 상황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자주 6자 회담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외교가

느리나무광장

지난 여름 숨가쁘게 이곳저곳 돌아다녔다. 그 여정 내내 떠오른 話頭 하나.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7월 초 동북3성에 갔다. 조선족 자치주가 轉政을 추진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延吉에 가보니 다운타운은 두 집 건너 한 집 단란주점과 노래방이었고, 패스트푸드점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었다. 푸른 공단에는 해외투자업체 몇 곳이 입주해 있었다. 하지만 기껏 고무장갑공장이나 쓰레기봉투공장이었다. 맑은 냇물과 푸른 하늘이 나빠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런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표집자 그곳 관리들이 엄정 서운해했다. 조선족들의 표정이 18년 전보다 오히려 어두운 것 같아 맘에 걸렸다.

7월 하순, 베트남에 갔었다. 한 구호단체의 봉사활동에 동행한 것이다. 수도 하노이에서 포장도로를 두 시간 여, 다시 수십 킬로미터를 비포장도로를 따라 한 시간 여 더

돌아간 곳에 자리한 산간 오지. 1960년대 우리의 정서와 미덕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곳은, 실타래같은 궁핍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필두로 대가족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정감 넘치는 시골 마을이었다.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기, 화장실 개조 등 30여 년 전 국내 오지 마을에서 겪었던 농촌활동과 유사한 활동에 동참

진정한 행복

尹在錫
국민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했다. 그 단계를 이번 여름, 특별 메뉴로 마을을 흥분시켰다. 학교 두 곳에 PC 5대를 기증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역시 달랐다. 난생 처음 본 컴퓨터에 앉자마자 바로 익숙해졌다.

필자는 문제제기를 했다. 오지 마을의 조그마한 디지털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이 가져온 '빛' '민족'이나 길게 드리는 '그림자'에 관해 얘기했다.

저 초초초초초고 티없이 맑은 소녀들이 初戀를 할 때쯤, 이 마을은 어떻게 될까. 소녀들이 채 여덟지도 않은 몸통 아리에 아한 옷 걸치고 하노이나 호치민시로 진출하게 되면, 한없이 인지하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겠지. 물론 아이들이 그것을 신분상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다.

문득 30여 년 전 충남 어느 마을에서 만난 청년의 말이 생각난다. "당신들이 뭘 깨우치겠다는 거야. 우리 이대로 행복하거든." 그 청년은 내 친구가 되었고 아직 그 마을에 살고 있다.

동문칼럼

감격한 태풍·홍수와 폭염은 시간이 가면 많은 피해자를 남기고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날이 불거 물들고 있는 한반도의 적화현상은 도를 더해 가고 있다.

친북 성향의 단체인 전교조, 민노총, 한총련, 통일연대, 범민련, 전국연합, 범청학련 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金正日이 내세운 선군정치를 비화·옹호하면서 극단적인 친북·반비의 선전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방북한 민노총 간부 4명이 지난 5월 1일 북한의 혁명열사릉을 참배하면서 현화하고 50여 명이 대열을 지어 묵념을 한 사건이 석 달이 지나서 밝혀졌다. 이들 친북·반비단체들의 정세와 배후를 알릴 없는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들의 이적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국회의원, 검찰, 경찰 중 어느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고 정권 탈환을 다짐하고 있는 한

것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돌아보는 것과 함께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남로 노골화되고 있는 친북단체들의 활동을 고려한다면, 서민들의 투표성향, 선진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보다도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공조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친북·반비단체들의 배후와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활동

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더 급한 일로 보인다.

과연 이들 친북단체들의 활동이 건국과 조국의 수호,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생명과 재산과 각종 희생을 바친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헌신에 부합하는 일인가? 이들은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6·25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후 주민을 굶겨가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들은 진정으로 남북한 동포들이 평화롭게 상생·공영하면서 선진국을 건설하는 것에 동의



宋鍾煥
(외교64-68)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대한민국 赤化현상부터 막아야 한다

나라당을 비롯한 어느 정당도 이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 2백여 명이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중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에 응한 1백4명 중 9명이 읽겠다고 해 1위가 된 책은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이다. 이 책은 서민층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2위는 朴正煥교수가 쓴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3위는 張夏聲교수가 쓴 '최도난바 한국경제'이며, 4위는 崔南鶴교수가 쓴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차지했다.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의 투표성향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책을 읽고 대한민국의 선진화 방향과 민주주의의 현 주소에 대한 교수들의 연구물을 읽는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김성욱의 '대한민국 赤化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좌익인사들이 지하에서 정권 속으로 들어갔다고 진단한 후 북한의 대남전략인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에 총지하게 복종하는 친북단체, 연구소의 계보와 관련 인사의 활동 등을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만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성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념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를 지구상에 우뚝 서는 선진 문화복지국가로 발전시킬 것을 꿈꾸는 민족지도자들은 어떤 책보다도 앞에서 소개한 책을 먼저 읽고 우리사회가 처한 이념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권고한다.

관아시단

버린 세월

張潤宇 (윤용미58-62)

성서여대 명예교수·한국국어미술박물관장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고향이 있다.

내색은 못하나 그리움에 사로치는 절절한 고향이 - 사람들도 마즈막이 가까우면 어머니 절글같은 고향을 그리다. 나 또한 그 곳으로 가려 한다.

침입이 절던 날, 그렇게나 떠돌던 大望과 挫折, 방황과 명분없는 타향, 비굴한 安住도 이제 헛웃음으로 날리며 가자, 물아갈 곳이 없다면 소리내듯 불려보자.

그곳엔 미루나무 높이 꺼져짐에 걸리고 앞빛가엔 송사리 무리지어 노니는 산골, 백야간 밤에 스치던 바람, 한 여름밤의 꿈, 오순도순 스글스글 동무들, 그 위로 높이, 혹은 낮으막하게 노니는 옛세월이 있었다.

모두들 여려로 갔는가 시골어가는 살갓에 눈물도 애마른 이마의 골을 따라 거친 세월의 찰흙이 가슴을 에워싼 따름이다.

2007년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를 제작했으며, 더불어 '탁상용 캘린더'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께 10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丁亥年의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병신한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동총 창회 사무처

“2010년 무역 8강 진입 위해 역량 극대화”

문제를 찾아서

李熙範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근 환갑을 맞은 한국무역협회가 '무역 1조 달러 시대, 무역 8강을 선도하는 초일류 무역진흥 서비스기관'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올해 2월 한국무역협회 수장에 오른 李熙範(전자공학67~71)회장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되는 데 협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세계 무역 8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협회의 무역서비스 역량을 더욱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사내가 환하 내다보이는 삼성동 무역센터 50층 회장실에서 만났다.

대답 : 본보 朴時龍논설위원(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 취임하신지 6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올해 협회 60주년을 맞이하는 등 협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무역협회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에 회장직을 맡게돼 기쁜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해방 직후 나라가 어수선할 때 가장 먼저 무역협회를 세운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선각자들이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당시 3백50만 달러 하던 수출이 올해 3천억 달러를 넘었으니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낸 것이죠. 세계 12위 경제대국은 무역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무역협회가 기여한 부분 또한 적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외환이 얼마나 중요하며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을 한 바 있지만, 이곳에 와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제는 그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경제가 선진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한국무역협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무역협회는 지난 1946년 1백5개 무역상사가 모여 창립했으며, 현재 회원사가 6만7천여 개로 늘었습니다. 협회 규모는 지상 55층의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 도심공화타워 등 자신이 1조2천억원, 예산이 2천억원, 사무국 직원 2백50명, 7개 본부, 43개팀의 거대 경제단체입니다. 외부에서는 협회가 자신이 많이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도 장관 시절 그런 생각

을 했죠. 하지만 와서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직이 짜임새도 있고 일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직원들, 특히 간부들이 얼마나 현장성을 가지고 회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는 거죠. 책상머리에서 보다는 수요자의 편에서 모든 것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 60주년을 맞이하며 무역협회가 ‘ubiquitous’ 무역기관’으로 변화 발전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무역하면 물건을 장터에 놓고 직접 물건을 보며 값을 흥정해서 샀거래가 이뤄졌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카탈로그와 샘플을 보내주며 계약을 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무역시대’를 열어보자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u트레이드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u트레이드플랫폼이 구축되면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그 안에서 상품을 흥정하고 계약해 상품을 보내주면 돈을 송금하는 모든 행위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게 구축되면 아마 세계 최초로 될 겁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금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 “FTA 거부하면 지금처럼 살 수 없다”

또 PDA·DMB 등을 이용한 실시간 거래 정보 서비스, 온라인강좌 이동 서비스 등 u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홍콩 TDC, 싱가포르 SBF 등 전 세계 무역진흥기관과 연계해 해외기업정보 DB를 확충하고 해외한인무역협회(OKTA) 등 파도 협력해 ‘한민족 무역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 인센티브 이시기도 한 徐廷旭 前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팀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 ‘무역 1조 달러 시대, 무역 8강을 선도하는 초일류 무역진흥 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니다. 그러나 고부가, 환율하락, 중국의 견제 등 수출환경이 좋지 않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외형상으로는 올해 역시 수출만 3천억 달러를 넘어 무역 6천억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환율이 고평가 되는 바람에 특히 엔화 대비 원화가 작년 연초에 비해 20% 올라 일본 수출이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물품을 국산화하던 업체들도 다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 2천여 무역업체가 무역업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주변국의 추격이라든가 또 FTA로 대변되는 지역주의에 우리가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불안요소입니다.

협회는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정부에 기도가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몇 개의 수출품목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상품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역적으로는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시장 공략에 더 힘을 쏟아야 하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010년이 되면 무역 1조 달러는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는 바로 소득 2만 달러를 여는 초석이 되겠죠.”

— 앞서 말씀하셨듯이 2천여 무역업체가 폐업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중소기업체를 위한 방안이 어떤지.

“제가 취임할 때 총회에서 중소기업의 불만이 표출됐는데, 무역협회 회원사가 6만7천개로 늘어나 일부 회원사들은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직접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한 번 번째 일이 중소기업인들, 특히 지방에 있는 무역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11개로 늘어난 이사회 산하 위원회엔 중소기업과 지방 대표들을 75%까지 늘려 협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New KITA Plan’에는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기금도 현재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밖에 환변동보증을 협회가 대납하는 문제, 외환은행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환기료를 인하하는 방안, 또 KOTRA와 MOU를 맺어 수출유관기관끼리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의 주요 업무중에 하나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의 원활한 성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회장님을 한·미FTA의 전도사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데 FTA의 장점이 어떤지.

“일마 전 백시코대사외도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해 준 말은 ‘한·미FTA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 너무 두려워하는 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가 양극화되고 실업이 늘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부자도 늘고 소득과 수출도 늘어 양극화는 오히려 해소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0년에 미국과 '슈퍼 301조' 협상을 했고 97년 유봉시장을 개방했으며, 이후 일본제품의 수입을 막는 수입산다변화제도도 해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 시장이 무너진다는 우려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업종은 피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상 이후에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이대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FTA를 안하고 지금처럼 살 수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멕시코와 일본이 작년 4월에 FTA를 체결한 다음 일본산 타이어는 멕시코에 들어갈 때 무관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가 넘는 관세를 냅니다. 결국 우리는 멕시코 수출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EU와 터키가 FTA를 한 뒤에 우리 기업들의 공장이 동유럽과 터키로 많이 나갔잖아요. 결국 우리가 EU와 FTA를 먼저 맺었다면 그만큼 국내 일자리는 덜 줄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백30여 개의 FTA가 체결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2%가 FTA하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2.5%만 FTA하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의 70%를 무역이 차지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선 소득 수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 차원에서 무역협회가 한·미·FTA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은행연합회와 공동 민간 일라이언스를 만들고 단체, 업체, 기관간 협력을 통해서 한·미·FT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산업대 총장, 산업자원부 장관 등의 공직을 수행하셨는데, 각기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협회일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고 싶으신지.

"무역협회는 수출을 진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하였던 산업·무역정책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일이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주미 상무관과 브뤼셀 상무관을 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다. 주요 요직에 있으면서 그런 친화력을 발휘한다는 게 한국적 풍토에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리더로서의 철학이랄까,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한다면 언젠가 기회는 온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행동했습니다. 한참 잘 나갔던 시기에 미국유학을 지원해서 갔던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였고,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익힌 외국어를 요즘에 와서 요긴하

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易地思之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대화를 하면 일이 쉽게 풀린다는 것을 체험으로 배웠습니다.

장관 시절, 방파장 부지선정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당시 부안 사태는 치안부제 상황으로까지 가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제가 장관을 그만 두면 날, 시민단체 대표들이 안국동에서 시위를 사주더군요. 지금까지 많은 직사를 대접받았지만, 그 날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둬라'고 했더니 '아쉽게요'라고 하면서 꽃다발까지 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회계에 올 때 일부 회원사들이 낙한신 인사라고 하면서 취임을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분들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이번에 개정판을 낸 것은 그동안 유럽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수정 증보를 못해서 책이 썩어빠져서 때문입니다. 장관을 그만두는 날 저녁부터 역시 수정판을 쓰기로 마음먹고 얼마 전 탐고해 출판사에 맡겼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일 집에 들어가면 밤 1시까지 PC에 매달려서 독자들을 낚는 기사들도 정리했습니다."

—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다른 길을 걷게된 동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67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전자공학 분야가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적성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전자공학과에 들어간 거죠. 당시 20명만 입학해서 14명이 졸업했습니다. 그 정도로 적성보다는 맹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중 절반은 전자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에 가 있지만 절반은 경제학 교수, 심지어는 흥부와 유사도 있습니다. 저처럼 행정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다른 분야

MBA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스개 소리로 '나야말로 박사' 이렇게 말하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들은 한 분야를 깊이 공부한 분들이지만 학문의 의미로 한다면 넓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잖아요(웃음). 수확한 해도 바가운데, 육백전까지 지우고 퍼터 드러까지 공부하는 바람에 고생 좀 했습니다."

— 행정고시 수석합격,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수재였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37살의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을 가서 처음부터 수석으로 졸업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입학한 날부터 도서관을 2개 싸 가지고 제일 먼저 도서관에 앉아 청소를 하다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때 학교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남들보다 앞서가려나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가족의 희생도 따랐습니다. 당시 가족을 거의 통보지 못해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잘 하신 게 아니고 체력도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엔 뽕도라 부르고도 하는데 특별한 건강관리법이 있으신가요.

"사실 공직에 있으면서 운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말에 등산을 가끔 작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았고, 남들처럼 스포츠센터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헬스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김라진 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금출신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두테산삼 출신이어서 중학교 때까지 산 넘고 뽕 건너 15~20리를 걸다녔습니다. 그때 자동차 타고 다녔으면 지금의 체력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 마지막으로 최근 취임하신 모교 李長茂총장님과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먼저 李長茂총장님의 취임에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차관을 할 때 공대 학장을 하셨는데 산학협동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일무도 훌륭히 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8월호 회보에서 '서울대를 32경에 올려라'란 사설을 읽었는데, 경제연구가 12위권인 나라에서 32경에 드는 대학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32경에 못 든다는 것은 과제가 많다는 뜻이겠죠.

경제연구가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울대는 적어도 세계 8강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규모에 치중하지 말고 질적으로 앞서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건전지 역할을 하려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도 노력해야겠지만, 교수, 동창들의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金南柱기자)

공학·행정학·경영학 섭렵해

‘易地思之’로 어려운 상황 극복



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일리 있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포용했죠. 요즘은 그분들이 우리 협회 이사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맡으면서 어려운 과제들을 잘 풀어 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가 됩니다. 최근 '유럽통합' 개정판을 탈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대학 교재로도 쓰일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집필동기와 메시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유럽은 25개 나라가 단일 경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2차 대전의 양극관계에 있어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럽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유럽을 잘 모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을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고 94년 2월 브뤼셀 대표부 상무관으로 발령 나자마자 집필에 들어갔죠. 컴퓨터가 없어서 전부 수기로 하고 귀국하는 날 탐고해 해 발간했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나왔고 유럽화에도 실험해 책을 발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로 전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 시절 쌓은 공학적 마인드가 평생 생활을 좌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공학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당시 진로에 영향을 많이 주신 교수님, 특별한 한 교수님께, 지금도 혹시 대학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기들은 분기별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은 고인이 되신 분이 많았습니다. 결혼주례를 하였던 朴東鎬교수님도 지난해에 돌아가셨고요. 전자공학 졸업 후 행정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당시 행대원은 '행정고등학교'라고 부를 정도로 동기들이 행정고시를 많이 치렀습니다. 동기 중에서는 장·차관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것들이 행정공무원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 공학, 행정학 외에도 경영학까지 공부하셨지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 같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에서

남가주지부동창회

합창단 창단 기념 음악회 개최

남가주지부동창회(회장 盧明鎭)는 지난 8월 4일 미국 Los Angeles의 명소인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동문 및 가족, 한인 교포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창단 창단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아놀드 슈워제거가 캘리포니아주지사와 안토니아 비아라고사 LA 시장 등 많은 인사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와 동문들을

격려했다.

모교 개교 60주년과 광복 61주년 기념을 겸해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 趙聖植(성악84졸)동문이 지휘를 맡아 80여 명의 동문 부부로 구성된 합창단원과 4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멋진 모니를 이뤄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합창단 金 堃(수외학63-67) 이사장은 “동문들의 취미생활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한인사회의 격조 높은 문화행사 중 하나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합창단원들은 세계적인 바리톤 高聖賢(성악81-85)동문, 스프라노 최주희(성악86-90)동문, 베이스버리온 張興榮(성악88-93)동문 등 10여 명의 성악가와 함께 오빠라 리플레토, 파기오의 결혼식,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등의 주요 레퍼토리를 불렀으며, ‘고향의 노래’ ‘경복궁 타령’ ‘농부가’ 등 흥겨운 우리 가락을 선보였다. 마지막 무대로 ‘그리운 금강산’을 들려주자 2천여 관객들은 일제히 객석에서 일어나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다음 공연을 기원했다.

남가주지부 합창단은 지난 2005년 합창단 金 堃이사장과 洪有顯(기악61입)유대동창회장이 제안해 2005년 6월 발족했다. (裴)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조달청장 취임 축하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8월 21일 대전시내 둔산동 한정식당에서 최근 조달청장에 취임한 金容振(경제70-74) 동문을 축하하는 환영모임을 가졌다.

吳회장은 金容振청장에게 “재임 기간 동안 훌륭한 실적을 거둬 동창회의 위상을 높여달라”며 “동창회 신화 공무원지회가 활성화해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鄭宗寧(행정54-58)·趙容武(법학60-64) 고문, 任徽中(치의학61-67)·崔成鎭(경영69-73)부회장, 姜信成(경영75-79)감사, 金星錫(치의학67-74)간사장, 張文熙(원자핵공학72-76)총무간사, 劉順愛(식물74-78)심의회장, 裴貴燮(영양교육71-75)·具本敏(법학77-81)이사, 俞炳秀(법학70-74)동문 등이 참석했다.



AMPFRI동창회

10월 15일 음식대회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呂東泰)는 지난 7월 28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가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10월 15일 개최 예정인 AMPFRI과정 설립 10주년 기념 체육·음식경연대회 예산 확보방안과 하반기 유망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 여부에 대해 토의했다.

呂東泰회장은 “체육 및 음식경연대회의 운영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족한 금액은 각 기별로 의무 분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유망인사 초청 세미나는 규모를 축소해 열기로 했다.

한편 AMPFRI동창회 동산동호회(회장 蔡明燮)는 지난 8월 26~27일 강원도 정선에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계 수련회를

개최해 백운산 등정 및 동강 래프팅(사건)을 즐기며 전폭을 도모했다.

생활과학대학동창회

“소모임 알려주세요”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興淑)는 최근 동문들의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을 파악하고 있다.

각 학과, 특별과정에서 활동 중인 동산·골프 등의 동호회는 모임의 명칭, 임원 명단 및 연락처, 회원 명단, 활동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면 된다. <문의> 880-1452, dream8@smu.ac.kr

음악대학동창회

全南直동문 골프 우승

음악대학동창회(회장 徐桂淑·사건)는 지난 8월 29일 인천전도CC에서 제2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상과대학동창회

장학금 41명에 전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지난 8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열린 향상장학회의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41명의 재학생에게 총 8천71만1천원을 전달했다.

洪龍濤회장은 “이번에 1천만원을 출연해 주신 우리투자증권 金鍾龍회장님 역시 상과동창회 장학생 출신이었다”며 “재학생들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수혜자에서 기증자로 보모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향상장학회의 장학금은 약간의 기금과 매년 특지자들의 출연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이날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金正鎭(경제52-56)·沈壽求(경제53-57)·金榮奎(경제55-59)·池昌壽(상학55-59)·洪性圭(상학58-64)·朴英珠(경제59-63)·朴

容展(경제59-65)·崔昌杰(경제60-64)·鄭啓泳(상학61-66)·李壽益(경제61-65)·俞鍾茂(상학62-66)·金鍾都(무역63-70)·金東寧(경제64-68)·朴魯成(경영64-68)·朴哲遠(상학64-68)·沈載廣(상학64-68)·洪龍慶(경제64-72)·金正泰(상학66-70)·成善鶴(무역66-70)·柳時卓(경제68-72)·金在鉉(경제69-73)·南鍾(경제69-76)·李在慶(경영69-73)·李鍾基(경영69-73)·李鍾烈(경영69-73)·李煌培(경제69-73)·全相國(경영70-74)·文大源(경영71-75)·安昊台(경영71-75)·河永求(무역72-76)·李載日(경영73-77)·金大鉉(경제75-79)·白昌基(경영76-80)·韓基鎭(경영79-83)·金炳玉(경영83-87)·田翼秀(경영83-87)동문.

동문 작품 자상 전시회

李相順 작

‘머루한 다래방 먹고’, 캔버스에 오일, 15F, 2005.



<작가약력>

- ▲60~65년 모교 회화와 졸업
- ▲개인전 1회
- ▲홍윤진
- ▲부산여류전
- ▲부산수채화전
- ▲서울대 미술대 온라인 동문전
- ▲부산·후쿠오카 교환전
- ▲부산 미술의 흐름전
- ▲현재 이상은 아드리노 대표



이날 대회에는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徐桂淑회장, 골프동호

회 李南珠회장 등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음악대학동창회는 취미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2일 인천전도CC에서 첫 대회를 시작으로 골프클럽을 결성했으며 매월 1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경기결과(신메리노 방식 적용)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金信珠(기악71-79) 87타 ▲우승·全南直(작곡82-86) 74.6타 ▲준우승·金泳律(기악76-80)동문 74.8타 ▲3위 金賢坤(기악71-78)동문 75.6타 ▲롱게스트·林宰沅(국악76-80)동문 2백m ▲아티리스트·金日輪(국악79-83)동문 5.0m

(南)



약학대학동창회

1회 동문자녀 약학캠프 열어

“엄마 아빠가 배운 약학이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奎鎔**)가 주최하고 약학대학(학장 **李承基**)이 주관한 제1회 동문자녀 약학캠프가 지난 8월 7~8일 관악캠퍼스 약학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20여 명이 참가해 약학개론 강의, 약학실습, 동물실험실 견학, 제약공장 견학 및 실습 등을 통해 약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崔秉宰(약학78~82) 동문의 아들인 **최성훈**(전주상산고 2년)군은 “약학캠프를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약사의 역할, 의약품연구개발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며 “약학대학 진학을 생각할 정도로 약학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약학캠프는 지난해 홈커밍데이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작됐다. 동문들의 반응이 좋아 독립 행사로 마련하게 됐다. 동창회 **鄭孝基**(약학83졸) 총무위원장은 “동창회 사업이 주로 동문 위주의 친목 모임만 있어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동창회를 새롭게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이수증이 전달됐다.

모교 **李承基**(약학65~72)학장은 “홍보가 부족해 신청자 수는 적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문 자녀에게 올바른 약사상을 심어주고 약학대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참가 범위를 확대해 오는 겨울방학에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학대학동창회는 오는 10월 22일 10시 모교 교수회관 잔디마당에서 제25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ACPMP동창회

李鍾洙회장 취임



건설산업최고전력과정동창회(회장 **金在源**)는 지난 8월 7일 서울 태워호텔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현대건설 **李鍾洙**(1기)사장(사진)을 제2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李鍾洙**회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2004년 1월부터

터 현대건설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해왔다.

ACPMP동창회는 2004년에 결성돼 현재 1백80여 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매달 세미나, 골프모임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오는 9월 22일 성남CC에서 총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IP동창회

姜錫大회장 선임

최고산업전력과정동창회(회장 **趙源駿**)는 최근 서울 리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우양기전 **姜錫大**(15기)대표를 선출했다. (관련인터뷰 13면)

신임 **姜錫大**회장은 “전임 회장단이

해운 사업을 이어 받아 회원들의 친목 및 정보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P동창회를 이끌어갈 제9대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간사장 : 미려C&R **夫福璽**(전축77~81·34기)대표 ▲총무간사 : 협주계대 **孫昌根**(14기)대표·동원홍 서정우(26기)대표 ▲재무간사 : 삼영회계법인 손언승(29기)대표·우리은행 공옥례(27기)지점장 ▲홍보간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韓明秀**(34기)부장간사 ▲심외간사 : 鄭源駿(34기)국회의원·P&K **朴龍奎**(13기)대표 ▲여성간사 : 이나루엔터티 배희숙(24기)대표 ▲간사 : 수성연지니언리 **金錫煥**(30기)부회장·우리은행 **金慶東**(31기)부회장.



법대 최고지도자과정동창회 조찬 세미나



한경대원동창회 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ALP동창회

趙甲濟대표 강연

법대 최고지도자과정동창회(회장 **黃義興**)는 지난 8월 1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국제홀에서 동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趙甲濟** 前 월간조선 대표는 “북한 물러나 너무 못된다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ALP동창회는 지난 5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동문간 정보 교류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다.

한경대학원동창회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

한경대학원동창회(회장 **崔秉宰**)는 지난 8월 25일 서울 리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5·31 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南相宇**(도시지역 제73종)창주시장, **李賢振**(SGS 27기)인천 계양구청장, **吳世勳**(SGS 7기)서울시장, **慎重大**(행정65~72·SGS 13기)안양시장, **南有鎮**(종교72~76·SGS 15기)구미시장 등이 참석해 동문들의 축

하인사를 받았다.

崔秉宰회장은 “이번 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장 의장 그리고 청주·안양 등 주요 도시의 시장이 우리 동문이란 점에서 동창회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멋있는 시절, 후회 없는 시절을 펼쳐서 우리의 도시와 국토를 아름다운 곳,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경대학원동창회에는 도시·환경교위정책과정(SGS) 동문을 포함해 3천3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10명의 동문이 당선됐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제주지부동창회 金恒元회장
(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

지난 1971년 설립된 제주지부동창회는 80년대 말부터 활동이 주춤해지자 단과대학별로 고루 참여한 동창회 재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993년 동창회를 재창립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임 동창회장에 취임한 제주대 金恒元(사회교육65-72)교수는 “지역 특성상 동창회보다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동문이 많아 이들을 규합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서면을 통해 金회장에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왔다.

— 단과대학 동창회가 활발하던데.
“의대와 치대동창회의 경우, 직업상 정보 교환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기회가 많습니
다. 그밖에 문과대·농대·사대·수의대동
창회 등이 단합이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부회장을 선임해 이분들을 중심

“매년 2월 이곳에 거주하면서 모교에 입
학한 신입생들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개최
하고 있어요. 신입생뿐만 아니라 2-3학년
재학생들도 불러 대학생활에 필요한 유익
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지역을 대접하
는 선배 동문들은 학생시절의 추억담을 들
려주며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죠. 참여를
이 지조한 젊은 동문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

“회비無… 식사비만 만원씩 부담”

으로 2백50여 동문들의 단합을 도모할 예
정입니다. 또 얼마 전 각 단과 회장과 총무
의 협조를 얻어 동창회 명부를 재정비했
고요.”

— 기금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난 2001년부터 ‘자연과 함께·동창회
발전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불과 가을에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저녁식사로 1만원만 내고 나머
지 비용은 동창회가 부담합니다. 이전에는
동창회비, 임원 분담금으로 동창회가 운영
됐으나 납부실적이 저조해 2001년부터 회
장만 연회비를 출납하고, 행사 개최 시 참
석 동문들은 식사비 1만원을 부담하는 제
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모임에
서 탈피해 소박하지만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공동 모임을 추구하고 있죠.”

— 선후배간 교류는.

요.”

— 제주대 출신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
면.

“저는 경기상고·경기고 교사로 지내다
제주대에 사회교육과가 신설되면서 교향으
로 돌아왔는데요. 제주도가 관광산업의 중
심지이지만, 정작 이곳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으며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
입의 대부분이 본사인 서울로 돌아가기 때
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되는 것이 별
로 없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
해서도 동문들이 뜻을 모아 좋은 일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金회장은 제주대 도서관·대학평의회
의장 등을 지냈으며, 사대 학장 재직시절
제주대 사범대학이 교육부에서 시행한 전
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수평분야 최우수 대
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IP동창회 姜錫大회장
(우양기전 대표)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식사
도 좋고, 주말 나들이도 괜찮습니다. 얼굴
을 마주보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일
에 대한 열의가 생기고, 신바람이 나지 않
겠습니까. 각 기별 회장단과도 수시로 만
나 그동안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자문도 많
이 구하고자 합니다.”

— 모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학연과 지연을 떠나서 서로 비슷한 분
아의 사람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다 보니
단합이 잘되는 편이에요. 졸업 후에도 관
련분야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어 동문들게
서 늘 ‘서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 조선세미나, 골프·산악회 등이 있지만
순수하게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 결성된 로
타리클럽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모교

지난 6월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AIP) 동창회장에 우양
기전 姜錫大(15기)대표가 선출됐다. 현장
에서 숨 없이 뛰어 다니는 엔지니어답게姜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15기 간사장·회
장, 총간사장·간사, 골프회장을 맡는 등
동창회 운영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자랑한
다. 신임 姜회장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끝을 맺는 성

“우수 교수 지원·소모임 활성화”

격이라 계획한 것을 꼭 실천에 옮기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 취임 후 서 달 정도 지냈는데.

“우선 회칙을 개정해 차기회장 선정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고, 모교 교수님 가운
데 연구업적이 뛰어난 분을 선정해 매년 시
상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직전 집
행부가 임기를 마치면 동창회 일에 조금 소
홀해지기 쉬운데, 전·현직 회장단이 유기
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회장직
을 만들어 鄭八道(AIP 1기)전임회장을 초
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 앞으로 중점사항은.

“조금 느슨해졌던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조인다는 목적으로 각종 소모임부터 활성화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공식적
인 행사가 있을 때에만 집행부 간사들이 모
이곤 했는데, 앞으로 무조건 시간을 많이

장학금 지원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인 관악
구와 봉천동의 관공서에 생필품을 전달하
고, 불우이웃·경쇠아동·독거노인 등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 우양기전(주) 소개를.

“74년부터 설비전문 분야의 외길을 걸어
온 업체로서, 냉·난방 위생 및 공기조화,
Clean Room 설비와 시공을 하고 있습니
다. 또 자회사인 한국이엔씨를 설립해 첨
단산업분야의 실내작업환경 오염을 방지하
는 클린룸 내부 공기조화장치와 클리닝 시
스템을 개발·제조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출신인 姜회장은 new기술개발
로 지난 2004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현재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 및 서울시
회장으로서 1천6백50여 서울지역 관계자
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ROTC 제
10기 동기회장도 맡고 있다. (表)

화제의 동문

‘미스코리아 眞’ 李하늬

“국악의 美 알리는 전도사 되겠다”

모교 출신이 미스코리아 眞에 선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모교 대학원 석사과정(가야금 전공)의 李하늬(국악02-06)동문. 가야금 중요무형문화재인 어머니 文在澈(국악72-76)교수, 국정원 2차장인 아버지 李相業씨, 외삼촌 文惠相(법학64-68)국회의원 등 화려한 가족 배경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 8월 22일 어머니와 함께 만난 李하늬 동문은 키 173cm, 체중 51kg, 34-24-36이란 수치를 넘어서는 특별한 매력에 있었다.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을 적극 추천했던 단골 마용실 원장은 “아름다움이 담장을 넘었다”고 표현했다.

이번 미스코리아 출전에는 마용실 원장의 집요한 설득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권유가 크게 작용했다. 그만큼 대회 결과에 기대했던 사람 역시 어머니였다. 李하늬 동문은 “가야금대회에서 상을 땀을 때어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다”며 “매일 미인 대회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사실 李동문은 대회 출전에 뚜렷한 목적을 찾을 수 없어 많이 괴로워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세 생

각과 많이 부딪혔어요. 하지만 대회를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 둘 목적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몸매, 어머니 눈매 닮아

李하늬 동문을 임신했을 때 무슨 꿈을 꿨을까? 화려한 꽃발 혹은 담스런 열매가 가득 열린 나무? 文在澈동문은 “태몽이 너무 징그럽고 이상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딸이아이를 났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덩치가 커 낚아차이인줄 알았어요. 첫째가 딸이라서 둘째는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태몽에 김이와 두께를 가늠할 수 없는 구름이인지 용인지 징그러운 동물들이 나왔어요. 당연히 사내아이일거라 생각했는데 여자아이가 나와 조금 실망도 했지만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려고 그런 꿈을 꾸면 게 아닌가 싶어요.”

‘하늬’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불러다 주는 하늬바람처럼 모든 아예게 복을 불러 주는 사람이 되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李동문은 아버지의 날씬한 몸매와 긴 다리, 어머니의 눈매·보조개를 닮았고, 재능으로는 아버지의 운동감각, 어머니의 음악성을 물려받았다.

이런 재능을 발판으로 李동문은 다양한 일을 꿈꾸고 있다. 최종 직업은 교수지만 젊은 시절에는 국악을 집목한 뮤지션, 대중음악, 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끼를 확인하고 싶다고.

“4살 때부터 지금까지 국악을 듣고 배웠어요. 국악을 뮤지컬, 팝음악 등에 접목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



금합니다.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것, 그런 것들을 실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직업을 한정짓지 않으려고요.”

李동문은 국악과 현대음악의 접목에 대해서도 유행에 따르는 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있었다. 학부시절 전공 수업 다음으로 많이 들은 철학 수업 덕분이다.

“철학과 白蔞紋교수님이 근대서양철학 수업 때 무분별한 서양 것의 차용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한국적이나, 서양적이나 그것은 괴물이다. 괴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늘 국악의 보편성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저에게 쉽게 흘러버릴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음악에서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은 보통 서양음악이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숙제지만 최고와 최고가 만났을 때 좋은 것이 나온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국악의 대중화를 추구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李동문이 미스코리아가 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화려한 가족관계

였다.

널리 알려진 대로 아버지 李相業씨는 고려대를 나와 경향대학장을 역임한 국가정보원 2차장이고, 어머니 文在澈 이화여대 교수는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선정된 인물이다. 언니 李승기(국악99-03)동문은 KBS판 현악단 가야금 연주자로 촉망받는 국악인이다. 최근에는 재즈가수 박용찬 씨와 함께 앨범 ‘그린카페’를 발표하기도 했다. 남동생은 서울예고(3년)에서 대금을 배우고 있다.

외삼촌·이모·언니 등 6명 동문

친척으로 외삼촌인 文惠相동문 외에 ‘신바람 노래감사’로 유명한 방송인 文仁淑(국악67-71)동문이 큰 이모다. 또 경북대학 文惠淑(조소78-82)교수가 작은 이모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뽕”으로 미스코리아에 당선했다는 풍문이 떠돌기도 했다.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 세 남매가 모두 국악을 전공하니 가족 콘서트를 열어도 될 것 같다. 아쉽게 아니라 文在澈동문은 가을에 ‘국악왕상을 이랑’이란 가족음악회를 계획중이라고 했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 두 딸이 바빠지는 바람에 계획했던 대로 열 수 있을지 의문인지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꼭 참여하려고 하니 성사될 것으로 믿습니다.”

李하늬 동문은 요즘 양드래미 패션쇼 준비로 바빠. 또 내년 미스월드대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대학원 공부도 쉬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 바람을 묻는 질문에 文在澈동문은 “하늬가 미스코리아에 선발돼 방송계에 진출한다면 뭐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 없다”며 “미스월드대회에 나가 우리나라에 좋은 선물을 해줄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李하늬 동문은 “어디서든 서울대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 부모님 욕되지 않게 늘 겸손한 자세로 살겠다”며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줄 것을 부탁했다.

(南)



어머니 文在澈동문과 기념촬영

Noblesse Oblige

민간난민지원센터 '피난처' 李昊澤대표

법학도에서 난민 도우미로 변신

유엔 여론국에 따르면 인종적·종교적 멸시와 박해, 정치적 의견 대립에 의한 분쟁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자국을 탈출하는 난민은 약 9백20만명,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길게는 25년 이상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난민에게 도움을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에 대한 관심은 인색한 편입니다.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요.”

법학과 재학시절부터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동법을 공부하다보니 어느새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는 李昊澤(법학79-83)동문.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몇 번의 시험시험 심때도 당장 내일이 없을 것만 같이 불안하고 초조했다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내 “아픈 기억이지만 지금의 삶을 살게 한 시간이었기에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험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고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버리던 날, ‘꿈이 사라지면 또 다른 꿈을 꾸라’는 말처럼 그가 다시 꾸게 된 꿈은 바로 지금의 ‘외국인노동자와 난민을 돕는 도우미로서의 삶’이었다.

2백여 난민에게 희망 심어

사회에서 가장 소외 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장치가 너무도 부족한 것이 그가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을 선택한 이유였다. 그렇게 시작한 李昊澤의 삶은 낮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업무, 퇴근 후와 주말 등의 시간은 외국인 선교단체 법률상담 그리고 민간난민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그야말로 ‘3중 생활’의 연속이었다. 덕분에 그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얻어낸 난민은 약 20여 명.

국내에서 난민지위가 인정된 난민이 총 5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李昊澤의 노력과 헌신은 어땠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피난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난민은 북한난민을 포함해 쿠르드, 미얀마, 방글라데시 출신, 아프리카 콩고 난민 등 약 2백여 명이다. 이처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 도움을 주다보니 기억에 남는 일화도 많다.

“한번은 이라크에서 탈출한 쿠르드난민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인정에 실패한 그들은 자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될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피난처에서는 서둘러 그들을 구하기 위한 자료를 발로 뛰며 준비하기 시작했고 결국 난민지위와 비슷한 인도적 지위를 얻어낼 수 있었다.

“쿠르드인들에게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연 외에는 국가가 아니며 사람이며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속담이죠. 그런 그들이 피난처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고 시작한 일이 아닌 만큼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이처럼 한국을 희망하던 그들이 난민지위를 얻어 그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피난처에서는 이들이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정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18일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장한 북한 자유이주민들의 아환인 자유터 학교와 국제난민인권학교’를 운영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난민들은 현재 약 9백여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과 인도적 이유에서 탈출한 난민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 선진국에 비해 난민지위인정에 유독 인색한 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계 여러 나라로 입국하는 난민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는 만큼 난민지위를 얻지 못하고 송환됐을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뿐 아니라 생명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李昊澤동문과 피난처 사람들의 난민 구조지원활동은 밤낮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서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피난처’를 민간난민단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난민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들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 기자가 처음 李昊澤동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한 일간지에 게재된 ‘신장기증 이야기’ 때문이었다.

“군대 제대 후 시험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지역신문에 신부전증에 걸린 신장병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냥 안타깝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며칠이 지나고 그 사연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는데 李昊澤동문은 결국 자신의 신장을 그 신장병에게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신부전증 환자에 신장 기증

결심을 하기까지 한 달의 시간동안 그를 고민하게 한 것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역시 시험준비중이라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문득 ‘혼자 살아가면서 하는 일보다 둘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자 쉽게 결심을 굳힐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르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도움으로 인해 역경에 처한 이가 도움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照)



공트 릴레이

용의 새끼는 하늘로

韓 雲 史 (불문47일)

작가·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고문



우리나라 이거,

내일이 있습니까?

싸가지가 있는

민족이야.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괜찮아.



일러스테이션 曠濤亨 (서양화022) 동문

반노인은 서초동 한국석의 아파트에 산다. 밤중에는 안 자고, 새벽에 잠자리에 드니 대낮 12시가 지나가 깨어난다. 다급한 일어난 거 있는데, 어쩌다 강북으로 나가자면 시간이 있을 때는 마을바스로 교대역까지 가고, 나머지는 무임 지하철을 이용한다. 세상에 이렇게 경로사상이 철저한 나라가 없다. 마을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디 또 그런 나라가 있을까.

그러나 다급할 때는 택시를 이용한다. 빈차가 여간해서 안 온다. 건너편에 한 대가 나타나면 반노인은 “아이!” 하고 소리를 지른다. 신호가 떨어지고 나서 황급히 건너가 “남대문으로!” 하면, 한참 기다려 운전기사

바라보고 있어”

“예? 우와! 어르신 참 대단하시네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어. 요즘은 젊은이들 세상 아닌가”

“그래도 어르신네들이 다 세워주신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당신, 기록하군.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나?”

“하노라고 하는 건데 어디 세상이 똥대로 돼지지요”

“말하는 게 신통하시네, 저 바깥의 회회 지나가는 풍경, 빌딩이며 나무며 우리 연배한테는 기적이지가”

“기적이라요?”

“아무것도 없었던 저곳에 저런 것이 생겼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 모든 게 기적이야. 기적이야”

“선생님 일제시대엔?”

“군대 끌려갔었지”

차가 터널 앞에서 밀렸다. 택시기사는 조심스럽게 뒤돌아보았다. 새하얀 노인이 앉아 있다. 여든이 넘는 노인치고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왜?”

“현대사를 뵈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니로군”

“해방 때 신나셨죠?”

“응! 우리도 나라 한번 갖게 됐다고 말야. 그런데 회오리바람이 거세어, 사상전란이 회오리바람이...”

“어느 편에 서셨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망설이다가 6.25가 터졌어. 참담했지만 그것이 선택의 기회가 됐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터널 안은 환했다. 창문을 달아서 이야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기사는 문득 “이승만 박사는 독재자입니까?”

“응, 독재자였지. 일원화하였으니까. 그러나 디스 이즈 코리야! 여긴 한국이다. 자 존심을 낸다 내뽐을 용감한 노인이었어. 그러나 암흑기였지, 이 터널 안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지독한 독재자!”

“용납했습니까?”

터널을 빠져나왔다. 세상이 환해졌다.

“마지 지금처럼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어. 세상이 캄캄했었는데, 서서히 밝아왔어. 그때 대한민국 내기 겨우 열 두사내 살밖에 안됐었거든,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 쓸어라, 길 닦아라, 논밭에 나가서 일하!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 외쳤거든”

“군사정권의 독재로군요?”

“그게 필요한 시대일 줄이야, 외국에서 돈 펴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 공장 세우고, 생산하고, 한 10년 가량 정신없이 달려가다 세계의 바닷가로 나갔지. 비로소 대한민국이란 명함을 내걸고 말야”

“부정부패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묘한 압축을 나타냈거든. 생선은 약간 간 간 것 같은 것이 맛이 있다고, 그것이 성정의 축진제 노릇을 했으니 말야”

한국은행 앞에서 좌회전하는 것이 어려웠다. 기사는 노인의 열변이 그칠까 봐 기다리는 시간이 걸렸으면 했다. 전세계 앞의 분수대에서 내뽐는 물줄기가 어찌지 웅대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보라!” 하고 노인은 바깥을 가리켰다.

“명동 쪽으로 쪽 뻗은 저 고층건물의 숲, 시청 쪽으로 환하게 열린 대로, 남대문 쪽으

로도 저 빌딩 숲. 일제시대엔 여기가 별거 아니었어. 지금 저것들은 다 기적이야”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까?”

“그렇지! 하면 된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지”

차가 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밀린다.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자력이야. 몇 10만대씩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힘!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외치던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청난 에너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면 세계로 뽐낼 커다란 힘이 되지”

“저 거리에 넘쳐흐르는 젊은이들 많지 않습니까?”

“밟긴 이 앞날이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아아 우리나라 젊은이들처럼 눈빛이 반짝이는 나라, 세계에서 드물지 않을까? 살아있어!”

“일할 터전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게 문제라고, 정치를 잘해야 돼. 뜻하면 아무것도 아냐!”

“남북문제, 어떻게 대대보십니까?”

“갈라졌던 한 민족이 다시 어우러지자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합쳐야 한다는 의지와 그것에 접근해 가는 노력, 참을성. 한 10년씩을 대대보며 어프로치(approach)해 가는...”

“북에서 자꾸만 탈출해 나오는데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빠져나오지. 목숨을 걸고 말야. 그곳에 무슨 정치가 있단 말인가!”

차가 남대문 신호에 걸렸다.

“저 건너편 상공회의소 옆으로”

차는 그렇게 갔다.

“저 앞의 커다란 건물, 명지빌딩에서 벗어줘요”

기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우리나라 이거, 내일이 있습니까?”

“나는 대내관주의자야. 싸가지가 있는 민족이야. 엎치락뒤치락하지만, 괜찮아. 그렇게 헤쳐나가는 거야”

요금을 계산하고 나서 반노인은 물었다.

“대학에서 뭘 공부했습니까?”

기사는 멍뭇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어디서?”

기사는 조금은 미안하다는 양 말살이다

“서울대학에서요”

“오! 동문이로군. 나도 서울대야”

“오늘 말씀하신 거,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이야, 이제 인생이야, 서울대 출신이 택시기사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로군!”

그는 손을 내밀었다. 기사의 손을 꼭 잡았다.

“황을!”

“제가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돼지새끼는 돼지 울로, 용의 새끼는 하늘로’...”

“뭘? 그저 희한하다”

“선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차가 조용히 떠났다. 반노인은 그 차가 저쪽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한 두 발씩 옮기면서 그는 중얼거려보았다.

“돼지새끼는 돼지 울로, 용의 새끼는 하늘로...”

서울대 출신이
택시기사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로군!
돼지새끼는 돼지 울로
용의 새끼는 하늘로...



2천3백61명에 후기 학위수여

외국인, 석·박사 포함 총 99명

모교 소식

200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8~31일 각 단과대학(원)별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천1백7명, 석사 8백73명, 박사 3백81명 등 모두 2천3백61명이 학위를 받았다. 외국인 졸업생은 학사 18명, 석사 67명, 박사 14명 등 총 99명이다.

이로써 동창회 총 회원 수는 31만2천3백13명(준회원, 특별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 수와 동창회 회원 수는 표와 같다.

이번 졸업생 중에 학점 평균 3.9 이상을 받은 학생은 84명, 3.6 이상을 받은 학생은 1백9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각각 최우등, 우등 졸업 포상이 주어졌다. 모교 불어불문학과 吳生根(불어 불문66~70)교수는 대학신문을 통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분	8월 졸업	총 회원
인문대학	111	9,898
사회과학대학	125	12,839
자연과학대학	109	9,771
간호대학	4	3,214
경영대학	51	6,091
공과대학	310	39,166
농업생명대학	75	19,577
문리과학대학	-	9,731
미술대학	34	4,790
법과대학	77	15,316
사범대학	130	24,348
상과대학	39	6,723
생활과학대학	2	3,705
수리과학대학	-	3,079
안화대학	2	5,882
음악대학	38	6,837
의과대학	2	10,682
치과대학	-	5,882
대학원	1,108	76,771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국제대학원	40	201
보건대학원	34	2,973
사법대학원	-	508
신분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32	4,095
환경대학원	40	2,176
소계	2,361	285,083
준회원	-	13,338
(특별과정)	435	13,892
총계	2,796	312,313

해 졸업생들에게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고 엘리트의식과 나르시즘에서 철저히 벗어나 이웃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성숙한 인간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千勝傑교수 등 21명 정년·3명 명퇴

지난 8월 31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앙당에서 李長茂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1명의 교수 정년식과 공동 전기·컴퓨터공학부 金元鑑교

수, 차대 文藝秀교수, 보건대학원 金花中교수의 명예퇴직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千勝傑(영어영문학)교수, 任孝宰(고고미술사학)교수, 權泰煥(사회학)교수, 李文雄(인류학)교수, 朴淳雄(지구환경과학)교수, 李基和(지구환경과학)교수, 金梅子(간호학)교수, 李笑雨(간호학)교수, 郭秀一(경영학)교수, 慎荷根(경영학)교수, 權容雄(식물생산과학)교수, 曹正松(조경·지경시스템공학)교수, 崔松和(법학)교수, 郭光秀(불어교육)교수, 安希洙(지구과학교육)교수, 金義洙(체육교육)교수, 李在敏(국악)교수, 金康榮(의학)교수, 盧浚亮(의학)교수, 南秉錫(치의학)교수, 鄭張昌(치의학)교수, 〈다음 호에 프로필 게재〉 (南)



재학생의 소리

“동경대에 7:0 승리, 선배님 덕분”



金南均

(전기공학부 05입·2학년)
바둑부 회장

서울대 바둑부는 동경대와 올해로 30회 교류전을 치렀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동아리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선배님들이 과거에 저희 동아리의 회원이었고, 현재도 매년 1백명 가량의 신입생들이 바둑부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모교 바둑부는 매 학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와 한차례씩 교류전을 치르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동경대학교와 교류전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1학기에 치러진 교류전에서 신입생들의 활약으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모두 격파하고 최근 동경대와의 7:0의 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저희 동아리 교류전 중에서는 격년으로 한번은 서울대학교, 한번은 동경대학교에서 이뤄지는 서울대-동경대 교류전이 매우 큰 행사입니다. 올해는 8월 18~22일에 서울대에서 교류전을 치렀는데, 축구, 라켓션, 서투터, 포로기사 다면기, 인연도 엠티 등을 통해 동경대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내부적으로도 서로 좀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교류전에서 둘째 날 라켓션 때 졸업하신 OB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전 행사 외에도 일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관악국수전과 같은 큰 행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둑 두

는 사람들'을 매우 딱딱하거나 인색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교 바둑부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다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고, 다정하고, 적극적인 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좋은 선배들이 많았던 덕분에 저도 동아리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바둑을 두면서 얻는 장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아리 내 사람들과는 많은 행사를 함께 하는 탓인지 그 어느 동아리보다 연대감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교 바둑부는 재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앞으로는 발전해 나가는 저희 바둑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대 학장 간선제 추진

내년 9월 차기 선거부터 적용

모교 공과대학(학장 金道然)은 현행 학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외부 인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학장 선출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최근 김학장 명의로 전체 3백7명의 교수들에게 학장 선출제도 변경 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e-메일로 전달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외부인사 4명이 포함된 25명의 학장후보 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학장후보를 총장에게 제청한 뒤 공대 교수 전체가 총장이 지명한 후보를 신임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학장을 선임한다.

추천위는 공대 교수와 외부 인사를 모두 추천할 수 있으며 선임된 학장은 2년 임기를 채운 뒤 교

수들의 신임을 얻어 2년간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9월 중순 공대 교수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면 도입이 확정되며 내년 9월 차기 학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김학장은 “짧은 학장 임기와 폐쇄적인 제도 등을 개선하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잠정적인 내부의견 수렴결과,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0대 김영업 씨 모교에 2억 출연

택시운전·고철수집으로 평생 모아

70대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 온 전 재산 2억원을 서울대를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지난 8월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김영업(75세)씨(사진 右)가 모교 총장실을 방문해 “서울대의 발전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2억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김씨는 “초등학교도 못 나올 정도로 평생 못 배운 게 한이 많이 됐는데 최고 대학인 서울대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인 김씨는 40년 이상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택시운전과 고철 모으기, 채소·꽃가꾸기 등 딱치는 대로 일을 해 평생 재산인 2억원을 모았다.

아내와는 사별하고 슬하에 자녀 없이 조카들과 함께 살아온 김씨는 “연건기는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조카들과 친지들의 동



의를 얻어 이제서야 실천에 옮기게 됐다”며 “액수가 적어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김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절하게 되니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라며 “서울대에 거는 국민의 큰 기대로 생각하고 서울대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모교는 김씨를 위해 발전기금 안에 ‘김영업 장학금’이란 별도 계좌를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黃昌圭사장

포상금 모교에 쾌척

삼성전자 黃昌圭(전기공학72-76)반도체 총괄 사장이 지난 4월 수상한 과학기술훈장 포상금 전액(3억원)을 모교 공대에 쾌척했다.



지난 9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신공학관에서 모교 공대 金道然학장, 許鍾奎동창회장을 비롯해 공대 교수 및 학생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공계 육성을 위한 黃사장의 장학기금 출연식이 열렸다.

黃사장은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일로 선택의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출연한 기금이 이러한 인재 육성에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히포크라테스像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⑥

연경캠퍼스 의과대학 정문 좌측 화단에 세워져 있는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상, 의대 17회 동기회가 기증했다. 타의과대학에 있는 히포크라테스상들이 대부분 흉상인 반면 전신상인 게 특이하다. 히포크라테스선사 비문석(의대 본관 위엄터)과 동떨어져 복잡한 출입구 옆에 세워져 있는 점이 아쉽다.

중앙도서관

개교 60주년 회귀도서전

모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도서관(관장 朴明珍)에서 회귀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8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중앙도서관 4층 특설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 초기에 중국 송나라의 상소문 중 뛰어난 것을 골라 간행한 국보 150호인 ‘송조표전총류’, 1651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생애를 기술하고 그림 3백65점을 소개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회화본’, 1680년 영국 정치사상가인 홉스의 ‘영국의 시민전쟁’, 고산 윤선도의 시문집인 ‘고산유고’, 1670년에 출판된 人皮 장정으로 추정되는 도서 등을 공개한다.

작곡가에 첫 외국인 교수

독일인 브라이텐펠트씨

최고 모교 음악대학에 외국인 교수가 처음 임용됐다.

독일 출신의 유명 작곡가 겸 전 자음악 연주가 볼란트 브라이텐펠트(53세)씨가 작곡과 조교수로 임용돼 2학기부터 전자음악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친다.

외국인이 모교 전임 교원으로 임용되는 지난해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부교수로 부임한 호주 출신의 로버트 이안 매케이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브라이텐펠트 교수는 드레스덴 대를 졸업했고, 프라이부르크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스위스 보즈월 예술제단이 주는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다.

(張)

동문기자 회재주침

계륵(鷄肋)을 어찌 하오리까?

지난 7월 조선일보의 한 정치칼럼이 청와대와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대통령을 이른바 닭의 갈비(鷄肋)에 비유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반발했다는 게 논리의 요지다.

2004년 탄핵 정국의 수해를 한 몸에 입은 108번뇌 국회의원들조차도 대통령을 부당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내용인데 돌이켜 보면 그 제목이 대통령 하나만 만은 아닌 듯 싶다. 바로 우리가 먹은 닭이 그런 존재가 돼 버렸다.

중년 이상이라면 세 끼 중 적어도 두 끼 이상은 닭발을 먹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닭발만 먹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국민 1인당 닭 소비량이 한 가마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하루로 계산하면 소비량은 2백20g, 1백20g 짜리 공깃밥 두 그릇도 안 먹는다든 계산이다. 현재 닭 1백20g의 가격은 3백원 남짓, 그야말로 쌀값이 겹 값만도 못한 시대가 됐다.

이 겹 값만도 못한 쌀값도 국제적으로는 비싸다 보니 우리 닭 시장을 두고 미국과 중국, 태국 등의 수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올해 2005년도 의무수입량(MMA)

2만3천 톤이 수입된 데 이어 2011년까지 연간 10만 톤이 넘게 수입될 예정이다. 10만 톤이면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의 한해 소비량과 버금가는 양이다.

한때 수입된 미국 칼로소 닭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별난 현상은 채 세 달이 못 가서 미국 닭 사재기로 마음을 했다.

밖에서는 값싼 닭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안에서는 매년 5백만 톤의 닭이 생산되고 있다. 가격으로 치면 9조원 어치 나 된다.

이런 닭이 정부로서는 골치이다. 양국화 해소라면 모를까 매년 농가에 주는 전문화적인 보조금도 부담이다. 그래서 요즘 과천 공무원들조차도 쌀값이 떨어지자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시대가 됐다. 예전 같으면 어렵다는 '말발'로 치부됐겠지만 지금은 닭의 가치와 농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가 됐다.

남한에서는 현재(?)받는 닭이 북한에서는 없어서 난다. 정부가 수해백구 치원에서 닭 1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 90만 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을 다녀 온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논 상태로는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퇴비 대신 화학비료에 의존한 결과라는데 분뇨가 없어



林秀根

(독문83-87)

YTN 경제부 차장

퇴비 생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보다 못해 퇴비 생산용으로 축산분뇨를 주겠다고 했더니 자존심 때문인지 안 받겠다고 해 요즘은 검사결과 양분수치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그렇다 치고 남한 닭은 언제까지 천덕꾸러기로 남아야 할까? 몇 가지 예외 소드를 보자.

하나. 지난 2004년 국내 농산물 전체의 부가가치는 76조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11%를 차지했다. 농업 관련 종사자 수도 3백80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산업의

2003년 생산액은 75조원으로 GDP의 10.3%를 차지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미국 수입관세 2.5%가 없어진다고 현대와 기아차의 수출이 급증할까?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닭을 제외하고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지금 마지막 농업세대가 사라지고 내년 닭 자급도 위협받는 때가 올 수도 있다.

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닭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도매상들이 판매할 닭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자 정부가 급히 비축해 1백만 석을 방출했다.

셋. 수확하지 않고 중간에 소먹이로 이용하는 종제보리 재배지역이 최근 1만 헥타르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도 보리 생산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넷. 전시에 배급될 국민 1인당 닭 배급량은 5백g에 못 미친다. 계산하면 밥 세공기 정도로 떨어져 있다. 정부가 최근 이 배급량을 50%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전시에 그러니 이제까지 얼마나 지켜질 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불과 한 세대 전 파란만장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배가속 흡입력이 좋아 먹었다고 한다. 전쟁이 나야 닭의 귀함을 알 수 있을까?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이 희박하다.

동문기자 회재주침

여자라는 사실이 행복하다

팔자의 직업인 신문기자는 결코 여자들에게 불리한 직업이 아니다. 한국사회 여자들의 술한 직업들 중 '여자'는 비교적 남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매력적인 직업이다. 많은 직업들 중 '여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은 오랫동안 남자의 직업이었으며 현재도 그렇다. 공사를 따낸다고 아직은 일하는 여성들이 미미하다. 신문사도 여자들이 소수인 마찬가지다.

사회변에서 혹독한 사건기자 생활을 3년여 기량 했고 당시에는 여자들의 불모지였던 경제부 기자 생활을 4년 기량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대다수가 남자였다. 2001년 당시로서는 언론계 통틀어 前無後無의 아직까지도 後無한 사건기자 탐장을 할 때도 했고 회사 노조 사무국장을 할 때도 언론사 첫 여성 중앙일보에서 기자협회보에 인터뷰 기사를 남 정도였으니 흥일정 생활을 해 오며 한 편이다.

'여자 최초'라는 수식어가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희소성이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 나의 이력도 분명 일종의 상처였으며 그것은 결코 나 혼자 잘 나서가 아니라 많은 동료 선배(물론 대부분 남자들)의 도움과 배려의 결과였다고 고마운 일이다. 어떻게, '여성 최초'라는 것이 남들 눈에는 상처라고 보여 부러움을 입지만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나의 내면은 힘들고 외로운 적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동성이라면 더 편하게 마음 깊은 곳까지 소통할 수 있

었을 텐데 늘 혼자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직장생활에서 뿐 아니라 여자라는 직업 자체가 가져다 준 특성이기도 했다. 대개 출입처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대조각자 처 세 있는 직장인 정점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 분들은 대부분 나보다 10년 내지 20년 이상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었다. 이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여자라는 직업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분들이 여였어도 힘들었을 편인데, 직장 내 여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지금 같은 문화와는 동떨어진 세대의 남자들이었다.

사회생활하며 접해 본 여자들끼리, '아내'와 '딸'(때로 '술집 아가씨') 정도인 그들에게 여자들은 신기한 그 자체로 비쳐졌을 것이며 때로 어떤 분들은 이 신기한 직업의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당혹스러워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때로 그들에게 내가 보아온 했던 지나친 용기와 지나친 대담함은 '불안'의 또 다른 형태였다. 결코로는 활달하고 명랑하게 행동했지만 내면에는 늘 맹렬한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어느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외로움이 단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와 다수라는 '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창시절을 통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동시에 가졌던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 서야 비



許文明

(기정관리86-90)

동일보 교육문화부 차장

로소 내가 일종의 소수자이며 아웃사이더이며 비주류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나의 선택이 아니었던 현이라는 골목 속에서 소수자로 전락했다고 느꼈다. 백인 속 흑인들, 정상인들 속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나의 박탈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흑인이라고 혹은 장애인이라고 살아 불행한 게 아니듯,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라는 자각이 일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은 문득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생각의 폭을 선사했다.

나는 여자로서 태어나 남자보다 더 많은 것

을 경험했으며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에게 늘 새로운 도전이자 또 다른 생의 원인이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그림자 속에서 빛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햇빛 속에서 그림자를 보는 법은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여자로서 태어나 너무 좋다는 생각으로 차를 바꿔왔다. 차근차근 옛 일들을 찾아보니, 여자로서 내가 얻은 이익은 남자가 아니어서 당한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았으며 다만 여성 스스로 내게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아 이렇게 여였을 뿐 매우 많은 분야에서 나는 큰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각자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길이 있고 이는 여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여성의 삶도 동등해질 수 있는 일반인들 기준이든 게 어떤 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옛 선배들이 남자와 똑같이이고, 남자와 싸워서 이겨야하는 전투를 했다면, 이제 나와 같은 우리의 세대는 상생을 모색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선, 여자로서 태어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16년 직장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실제로 나는 여자로서 태어나 더 강해졌으며, 폭 폭적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됐다. 그리고여 여자는 버려질 할 줄 레가 아니라 내가 받은 최상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 나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

동 정

수 상

▲**池鉉根**(전기공학45-51 모교 전기공학부 명예교수·국제조명위원회 한국위원회 회장)=최근 황해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황해도 명예도민상(학술부문) 수상.

▲**朴權浩**(정치50-59 국제해안법 재관소 재판관)=지난 8월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3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尹炳興**(사회52-57 인하대 명예교수)=지난 8월 11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제2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

▲**柳宗夏**(정치55-59 외교교통상 부 장관·서강대 초빙교수)=지난 8월 9일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러시아정부로부터 국제협력

공로훈장 수훈.

▲**朴熙久**(국어교육56-60 서울시교육위원·전민족시조생활화운동본부 회장)=지난 8월 7일 한국언교수협회를 려에서 시조집 '귀거래사'로 제8회 시전시조문학상 수상.

▲**黃東榮**(영문57-61 모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예술인 권위)=지난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만해사상실천선

안회가 제정한 제10회 만해대상(문학부문) 수상.

▲**金芝河**(미학59-66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시인)=지난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만해사상실천선안회가 제정한 제10회 만해대상(문학부문) 수상.

▲**李容璵**(전기공학60-64 KT경영교수·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지난 8월 6일 세계 최고 권위의 IEEE(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프레드릭 필립스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

▲**金榮中**(약학68졸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8월 24일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제정한 제1회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대상 수상.

▲**權學暎**(국문71졸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만해사상실천선안회가 제정한 제10회 만해대상(학술부문) 수상.

▲**許雲那**(영문67-71 한국정보통신대 총장)=최근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제22회 인도 프리아다쉬 나 글로벌 어워드 수상.

▲**李東福**(국학68-76 경북대 국학과 교수)=지난 8월 22일 廟祭 朴堧山상을 기리는 난계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0회 난계학대대상 수상.

▲**襄仁俊**(철학70-74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지난 8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2회 한국잡언론인대상(논설부문) 수상.

▲**安相株**(체육교육71-75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지난 8월 9일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서러시아정부로부터 국제협력 공로훈장 수훈.

▲**洪孝貞**(미생물76-8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단핵질의약연구센터장)=지난 8월 24일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제정한 제1회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과학기술상) 수상.

▲**金昌均**(경제80-84 조선일보 논설위원)=지난 8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2회 한국잡언론인대상(정치분야) 수상.

▲**閔義植**(국악82-86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인 교수)=지난 8월 22일 廟祭 7남사업회가 주관한 제10회 난계학대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 수상.

인 사

▲**李秀洪**(정치49-59 청춘사 이사장·한국문화협회 이사장)=지난 8월 24일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제2대 회장에 선임.

▲**朴孟浩**(불문52-57 민음사 회장·대한출판문화협회장)=지난 7월 28일 임기 3년의 제4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선임.

▲**金鎭守**(사회57-61 대한거래신문 논설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한국노사관계연구원 이사장·한국노사관계연구원 이사장)=지난 9월 4일 KBS 이사장에 선출.

▲**林錫斗**(경문57-61 SBS제작본부장·한국방송위원회 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SBS사우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취임.

▲**黃仁勳**(기계공학61-66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지난 8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 부총장에 선임.

▲**李耕一**(철학61-65 한국외대 겸임교수·해직인륜인협회 회장)=지난 7월 28일 제4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선임.

▲**金英大**(행정61-65 대통령비서실·경계원동창회 회장)=지난 8월 10일 에코도트 1백97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페르난도 레온 주한에도프라스로부터 한국 명예영사에 위촉.

▲**李榮弘**(법학63-67 전서울고법 부장판사·前제주지법원장·前대법원 대법관)=최근 법무부인광 대표변호사에 선임.

▲**姜國鎭**(동물65-69 경북대 교수)=지난 8월 17~19일 한양대에서 열린 제61차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43대 회장에 선임.

▲**李純茂**(고고인류65-69 前국립중앙박물관장)=지난 8월 23일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로 임명돼 2학기부터 강의.

▲**朴基浩**(영어교육65-72 국민대 교수·한국영어영문학회 회장)=지난 7월 28일 제4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선임.

▲**李純熙**(국문66-70 前MBC 사장·前한국방송협회장)=지난 9월 1일 2년 임기의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

▲**韓錫均**(심학66-70 서강대 교수)=지난 9월 4일 임기 2년의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위촉.

▲**朴相植**(가정교육71졸 동국대 교수·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지난 7월 28일 임기 3년의 제4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선임.

▲**李錫俊**(지구과학교육71-72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장)=지난 9월 1일 경기도 수원교육청 교육장에 임명.

▲**金紅男**(미학67-71 前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장·국립민속박물관 관장)=지난 8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

▲**朴載元**(법학67-71 前사법연수원 교수·前전지법원장·서울남부지법원장)=지난 8월 24일 특허법원장에 임명.

▲**柳錫相**(사회68-72 前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前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지난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환경부지사에 임명.

▲**金錫權**(행정68-72 前서울가정법원·서울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24일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

▲**吳世彬**(법학68-72 前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前대전지법 원장·前서울지법 부장판사)=지난 8월 24일 대전고법원장에 임명.

▲**李太云**(법학68-72 前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의정부지법원장)=지난 8월 24일 광주고법원장에 임명.

▲**徐玉植**(중앙사학69-73 前연립뉴스 편집국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31일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 연구교수·한남대 국

방장대학원 초빙교수에 위촉.

▲**梁天植**(사회사학69-73 前경희대 금융비서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지난 8월 24일 서울인문행정장에 임명.

▲**丁海昉**(행정69-73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예산실장·재정운용실장)=지난 8월 8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임명.

▲**趙相起**(미학70임 前한거래신문 정치부장·부국장·편집위원장·논설위원)=지난 9월 4일 KBS 이사에 임명.

▲**李宙典**(법학70-74 前대법원선임재판관·前서울고법 부장판사·대전지법원장)=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

▲**安共植**(경제70-74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지난 8월 1일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에 취임.

▲**宋漢賢**(법학71-75 前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임명.

▲**柳元植**(법학71-75 前부산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지난 8월 24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임명.

▲**李鼎承**(행정71-75 前대전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24일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

▲**李錫元**(법학71-75 前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前서울고법 부장판사·제주지법원장)=지난 8월 24일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

▲**李峰壽**(경제71-75 美풍물리대 주립대 석좌교수)=지난 8월 9일 한국과학기술인 교육진흥회 회장에 취임.

▲**金大猷**(무역71-75 前제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공사)=지난 8월 8일 통계청장에 임명.

▲**洪贊柱**(정영72-76 前조흥은행·한국증권금융 사장)=지난 3월 24일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내정.

▲**金二澤**(법학72-76 前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24일 청주지법원장에 임명.

▲**申鏡澈**(법학72-76 前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지난 8월 24일 수원지법 원장에 임명.

▲**車漢成**(법학72-77 前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청주지법원장)=지난 8월 24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崔龍洙**(법학72-76 前인천지법·서울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24일 춘천지법원장에 임명.

▲**崔龍甲**(법학72-76 前부산고법 부장판사·부산지법 통부지원장)=지난 8월 24일 강원지법원장에 임명.

▲**金昌民**(의학72-78 국립암센터 책임연구원)=지난 8월 1일 임기 2년의 보건복지부 임정복추진기획 단장에 위촉.

▲**金凱城**(신대원72-75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중앙대 겸임교수·연변정보학과대학원동창회장)=지난 7월 28일 임기 3년의 제4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선임.

▲**尹鍾健**(교대원75졸 한국외대교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지난 7월 28일 임기 3년의 제4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선임.

▲**金龍均**(법학73-77 前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24일 의정부지법원장에 임명.

▲**李仁幸**(법학73-77 前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24일 인천지법원장에 임명.

▲**鄭甲柱**(법학73-77 前대전고법·광주지법·광주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24일 제주지법 원장에 임명.

▲**金建佑**(정영74-78 前한국재무학회 간사·경희대 교수·한국증권학회 이사)=지난 8월 16일 경희대 경영대학장에 취임.

▲**方碩熙**(법학77-81 외교통상부 지적재산권 민간자문위원·홍익대교수·미국 변호사)=지난 9월 4일 KBS 아사에 임명.

▲**金光琳**(현대원80졸 前제정경제부 차관·영남대 석좌교수)=지난 9월 1일 충북 제천시에서 있는 세명대 총장에 취임.

▲**朴良雨**(현대원81-86 前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지난 8월 8일 문화관광부 차관에 임명.

▲**金錫英**(영문85-89 美연리바마대 서양미술사 교수)=지난 9월 1일 한양대 사범대학 교수로 임명. 모전은 崔妍華(약학51-55)등문.

행사

▲**盧鍾熙**(법학48-52 모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지난 8월 3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후학들이 집필한 회고문집 '行囊流水' 헌정식 개최.

▲**丘仁煥**(국어교육50-54 모교 명예교수·문화과 문학교육연구소장)=지난 8월 23일 문학의 집·서울에서 '내 문학의 뿌리와 전집 27권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제69회 주요문학상장(구인환문학세계 포럼) 개최.

▲**金載姬**(회화56-60 한국미술협회·한국여류화가회 회원)=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월간 미술세계 기획 초대전 개최.

▲**李承熙**(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한국불루메리협회장)=지난 8월 16일 농촌진흥청에서 블루베리 나무의 생리·생태, 열매의 기능성, 재배 기술에 관한 세미나 개최.

▲**崔松和**(행정59-63 모교 발하부교수)=지난 9월 4일 서울대 교수·한글학회·한국어독문학회 회장=지난 8월 28-31일 모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동에서 '아시아의 문화학과 독어독문학'을 주제로 아시아 독어독문학자 학술회 개최.

▲**李鍾熙**(회화56-60 한국미술협회·한국여류화가회 회원)=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월간 미술세계 기획 초대전 개최.

▲**李承熙**(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한국불루메리협회장)=지난 8월 16일 농촌진흥청에서 블루베리 나무의 생리·생태, 열매의 기능성, 재배 기술에 관한 세미나 개최.

▲**崔松和**(행정59-63 모교 발하부교수)=지난 9월 4일 서울대 교수·한글학회·한국어독문학회 회장=지난 8월 28-31일 모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동에서 '아시아의 문화학과 독어독문학'을 주제로 아시아 독어독문학자 학술회 개최.

▲**李鍾熙**(회화56-60 한국미술협회·한국여류화가회 회원)=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월간 미술세계 기획 초대전 개최.

▲**李承熙**(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한국불루메리협회장)=지난 8월 16일 농촌진흥청에서 블루베리 나무의 생리·생태, 열매의 기능성, 재배 기술에 관한 세미나 개최.

▲**崔松和**(행정59-63 모교 발하부교수)=지난 9월 4일 서울대 교수·한글학회·한국어독문학회 회장=지난 8월 28-31일 모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동에서 '아시아의 문화학과 독어독문학'을 주제로 아시아 독어독문학자 학술회 개최.

▲**李鍾熙**(회화56-60 한국미술협회·한국여류화가회 회원)=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월간 미술세계 기획 초대전 개최.

▲**李承熙**(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한국불루메리협회장)=지난 8월 16일 농촌진흥청에서 블루베리 나무의 생리·생태, 열매의 기능성, 재배 기술에 관한 세미나 개최.

▲**崔松和**(행정59-63 모교 발하부교수)=지난 9월 4일 서울대 교수·한글학회·한국어독문학회 회장=지난 8월 28-31일 모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동에서 '아시아의 문화학과 독어독문학'을 주제로 아시아 독어독문학자 학술회 개최.

▲**李鍾熙**(회화56-60 한국미술협회·한국여류화가회 회원)=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월간 미술세계 기획 초대전 개최.

▲**李承熙**(농학57-63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한국불루메리협회장)=지난 8월 16일 농촌진흥청에서 블루베리 나무의 생리·생태, 열매의 기능성, 재배 기술에 관한 세미나 개최.

▲**崔松和**(행정59-63 모교 발하부교수)=지난 9월 4일 서울대 교수·한글학회·한국어독문학회 회장=지난 8월 28-31일 모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동에서 '아시아의 문화학과 독어독문학'을 주제로 아시아 독어독문학자 학술회 개최.

▲**姜孝**(기약63집 세종문화로이스츠 음악감독)=지난 8월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강원도수재민을 위한 자선 음악회 개최.

▲**金仁圭**(정치69-73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29일 신한금융그룹 대강당에서 '장애인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발대식 개최. 9월부터 장애인청년 및 협력자 60여 명과 함께 노르웨이, 미국, 호주,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해 선진 각국의 장애인 고용 실태와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할 계획.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姜孝**(기약63집 세종문화로이스츠 음악감독)=지난 8월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강원도수재민을 위한 자선 음악회 개최.

▲**金仁圭**(정치69-73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29일 신한금융그룹 대강당에서 '장애인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발대식 개최. 9월부터 장애인청년 및 협력자 60여 명과 함께 노르웨이, 미국, 호주,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해 선진 각국의 장애인 고용 실태와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할 계획.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金武仲**(성악69-74 대구가톨릭대 교수·테너)=지난 9월 5일 대구어린이화관 피피리극장에서 **普羅維**(작곡 51-55 대구교대 명예교수)등인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 개최.

작곡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힘)

▲ 박재휘 (국민윤리교육 96-00)·방세영 씨=9월 24일 14시.
▲ 현정훈 (경영 00-05)·이지현 씨=9월 24일 15시 30분.

'동정'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korea.com 또는 ahseop@snu.ac.kr
• 전 화 : 02)702-2233 • 팩 스 : 02)703-0755

서울대 가족

李相蕙 前국방부 장관

어머니·7남매·조카 등 14명 ‘작은 동창회’

“복지법인 ‘우리누리’ 설립...사람 사이의 사랑 실천”

시원한 가을바람이 무던히도 그리웠던 지난 달, 온 가족이 모이면 ‘작은 동창회’라는 李相蕙(AMP 19기 前국방부 장관)동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인 풍운대 캠퍼스를 찾았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고 전 7남매 모두 동문이 된 비법(?)의 궁금함이 서둘러 질문을 시작해 했다.

“형제가 많으면 큰 형이 가는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한 명이 가니까 그 뒤로 모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형제가 다 가는데 혼자만 못 가면 반보좌금을 받으니까 어쩔 수 있나? 가리지”라며 李相蕙동문은 “일찍 작고한 첫째 형남(李相一)의 뜻을 이어진 相赫형남이 형제 중 처음으로 법대에 진학했고 그 뒤를 이어 마치 경쟁이라든 하듯 相辰, 相文, 相隆, 純子, 相哲이 각각 입학하게 됐다”고 답했다.

입학시기에 6·25전쟁이 발발해 파란길에 올랐다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李相蕙동문은 85년 모교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 조금 늦게 동문이 됐다.

함께 자라며 경쟁상대가 되기도 하고 동문가 되기도 해 ‘형제는 하늘이 내려준 벗’이라 했다. 스스로없이 각자의 능력을 이끌어 줄 벗이 7명이나 되었으니 어찌 보면 한 남매가 모두 동문이 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형제도 형제지만 사실 7남매가 모두 동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였던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큼니다.”

李相蕙(성약62-66 준총D&C 고문)동문은 “6·25전쟁 그리고 8·15 해방 후” 어려웠던 생활환경에도 7명의 자녀 중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했었던 것은 자녀에 대한 흔들림 없는 교육관을 고집했던 아버지와 늘 믿고 기도해줬던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특히 모친인 故 方德順(경성사범27졸)여

사는 남매 중 한 명이 시험을 앞두는 날이면 함께 밤을 새우고 기도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다. 교육열뿐 아니라 가족의 화목과 형제의 우애를 매우 중히 여긴 부친 故 李相雨(서울사대부초 교장)옹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외부인사들을 초청, 온 가족이 모여 장기자판과 퀴즈게임을 하는 등 함께 하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만들도록 했다고 한다.

문득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던 李相哲(전기공학67-71 풍운대 총장)동문은 “덕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도 기념일이나 제사가 있을 때는 해외에 나가있는 형제들도 모두 들어와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부친은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했던 만큼 대학진학 시에도 각자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할 것을 권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힘이 돼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장남인 李相赫(형정50-59)동문은 법대를 졸업하고 삼성물산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車玉善(화학공학52-56 前한양대 가정대 학장)동문과 만나 결혼했다. 장남 李大熙(치의학85-89 서울치과병원장)동문과 며느리 申恩英(간호학86-90)동문도 모교를 졸업해 ‘가족 내 또 하나의 동문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미국 네브라스카대 석좌교수와 미국경영



앞줄 좌로부터 李相赫동문, 李相雨(父)·方德順(母)씨, 李相蕙동문, 뒷줄 좌로부터 李純子·李相隆·李相文·李相辰·李相哲동문

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李相文(상학57-61 前히트컨드지부 동창회장)동문은 가장 바쁘지만 휴자 중에 휴자라며 인터넷 내내 형제들의 칭찬이 그칠 줄 몰랐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李相隆동문은 어려웠던 시대인 만큼 예술분야로의 진학에 부친의 반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지지와 믿음이었다고 한다. 7남매 중 홍일집인 李純子(작곡64-68)동문과 남편 李載壽(기계공학65-69 보인사 수석연구원)동문도 모교를 졸업한 부부동문이다.

형제 중 막내인 李相哲총장은 前정보통신부 장관출신으로 얼마 전 풍운대 총장에 취임해 교육자였던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다. 이 외에도 李相一씨의 차남 李德熙(미생물학77-81 영인과학 상무)동문과 넷째 사위 金泰翼(역사교육77-83 조선일보 논설위원)동문이 모교 출신이다. 지방으로 작고한 李相辰(토목공학56-60)동문까지 포함하면 모두 14명의 동문이니 모이면 ‘작은 동창회’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李相蕙(AMP 19기)동문 가족

모친

故 方德順(경성사범27졸)

형

李相赫(형정50-59)

남동생

故 李相辰(토목공학56-60)

李相文(상학57-61)

李相隆(성약62-66)

李相哲(전기공학67-71)

여동생

李純子(작곡64-68)

형수

車玉善(화학공학52-56)

매제

李載壽(기계공학65-69)

조카

李德熙(미생물학77-81)

李大熙(치의학85-89)

조카사위

金泰翼(역사교육77-83)

조카며느리

申恩英(간호학86-90)

“돌아가시기 전 ‘사이’를 중히 여기라’고 하셨던 아버지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일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필요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李相哲총장은 이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형제들은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를 설립했다”고 전했다.

형제들은 아버지 소유의 정통 집을 ‘우리누리’에 기증,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원어린 교실과 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교회와 학교에 후원금과 장학금을 보내는 등 다양한 사회사업도 함께 실천하고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큰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서로 닮아 있는 가족. 李相蕙동문 형제와의 인터뷰는 볼스토티가 말한 ‘행복한 가정의 가족은 서로가 닮아 있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熙)

추억의 창 韓鳳傳(의화52-58)한봉전 내과의원 원장

해부학 무서움도 잠시...해골 항상 품속에
품속에서까지 라틴어 학명을 '중얼중얼'

동승동 공업연구소 내의 어둡고 허름한 예과 강의실에서 길보기에도 변한 옛날 경쟁제대 의학부 건물로 분과 학생이 되어 등교하던 날, 가슴은 희망에 부풀어 두반반이질 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월에는 라일락꽃의 향기가 가득 했으며 육중한 본관건물 3층의 날찍한 계단식 강의실(전장에 화구한 선종가들이 설치돼 있었음)에 앉을 때에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웬말인가? 무시무시한 시험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의 매일같이 해부학강의와 실습이 있었고 해부학실습에 들어가기 전 예비시험이 있었는데, 시험문제는 대부분 그 날 실습에서 나오는 뼈의 학명을 아는 대로 기록하라는 것이었다. 시험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돼 30분 내에 발표했는데 최고가 70~80점, 최하는 -35점이 나왔다.

"세상에 마이너스점수가 어더 있느냐" 고 한 학생이 항의를 하자 엉뚱한 뼈의 이



1954년 해부학교실 실습장면

름을 적으면 -5점, 스텝일이 틀리면 -3점이 되며 이들 점수는 다음 번 예비시험 점수와 합산해 학기말에 공표한다는 것이었다. 60점 이하는 탈락이었다. 한 학생이 "교수님 이것 외워봐야 급시 까먹을텐데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실 것 무엇 있느냐?" 하고 질문하니 "한번 외웠다 까먹

는 것이고, 처음부터 모르는 것하고는 천지의 차가 있으며 의과대학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모르기 때문에 의사자격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 해부학실습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해골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무섭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학생들은 해골 하나씩을 분해받았다. 모두가 긴장이 돼 얼굴이 창백하게 됐으며, 머리는 꾸벅꾸벅



필자

서고 밑문이 막혀 종이 한 장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크게 들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며칠 안지나 천속같이 들어 해골을 머리 위에 얹고 있는 친구,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친구, 책보에 싸 가지고 집에 가져갔다 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해골을 쓰고 있는 머리를 팔

다리째로 두들겨 장구치는 모습으로 공부하는 친구까지 생겨 해골이 이제는 교재이자 장난감으로 둔갑한 듯한 형국이 됐다.

실습 후에는 조교가 학생 한 사람씩 불러 철사로 뼈를 묶으면 학명을 라틴어로 외는 올림파스트(구두시험)를 했는데 바로바로 대지 못하면 다시 실습실에 보내져 완전히 외을 때까지 재시험을 보게 됐다. 필자는 첫 날과 둘째 날에는 한 두 번 재실습을 한 일이 있었으나 다행히 셋째 날부터는 그러저럭 패스해 고난을 면할 수가 있었다.

당시 필자는 해화동 소재 정결원에서 밤에는 가정교사를 했는데, 민일 학업이 늦게 끝나면 가정교사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생각할수록 아찔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 12시까지는 학생을 가르치고 그 후 두 세 시간씩 의학공부를 하고 취침했다. 어느 날 재자가 "선생님은 자면서까지 영어인지 원시 외면서 주무신다"고 말하는데 보나마나 해부학공부 때문이지 싶다.

그때는 비록 생활은 고달팠어도 꿈과 희망과 이상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으나 세월이 허름없이 흘러 이제는 70대의 고령이 되었으니 희망이란 터진 풍선처럼 박살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그때의 꿈을 꿔 소스라치게 놀라 깨는 경우가 있다.

신간

그 다음은

네 멋대로 살아라

—金在淳 지음



본회 金在淳(경제 45-52 섣터사 고문)명예회장이 원간 장이 원간 장간 호부터 뒤표지에 써온 글 가운데 1백여 편을 모은 책.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바코드가 부착된 이 책에는 삶과 꿈에 대한 깊은 성찰이 가득하며, 거짓 없이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기도 담겨 있다. 이 책은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름'은 '용기'를, '가을'은 '사랑과 예술'을, '겨울'은 '성찰'을, '그리고... 봄'은 '희망'을 다룬다. 삶의 회로에 따라가 지침이 되어주는 지혜를 담고 있어,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고 있다. (섣터사·값9,000원)

자연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吳洪哲 著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문연구위원 吳洪哲(지



리교육 54-58) 동문이 펴낸 자연학 입문서. 이 책은 자연을 현상계열에 따라 분류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하늘과 땅, 방위와 안락, 기후와 절기, 산천과 강산, 빛물과 바다, 지형과 지물 등에 관하여 고사성어와 속담, 사전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서출판점·북메이트·값25,000원)

소년의 성 보이론

—崔靑 지음



모교 여인이 병원장을 지낸 소아비뇨기과 崔靑(의 화 63-69) 교수가 만화가 홍승우 씨의 공동으로 펴낸 사춘기 전후 소년들을 위한 성교육서. 이 책은 주인공 피노키오의 첫 동정을 시작으로 사춘기 소년들이 고민하는 성에 관한 내용을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꾸며놓았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적인 위생 생활 습관에서부터 임신과 출산, 피임법과 성폭행까지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동아일보사·값12,000원)

국제경제학: 이론과 정책

—姜正模·李相奎·李季浩 옮김



다른 국제경제학 교과서와 달리 새로운 접근법과 혁신적인 이론을 기존의 국제경제학 내용에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주요 개념과 이론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대학교재. 경제대 姜正模(동경대 65-69)·李相奎(경제 74-78)교수와 충북대 李季浩(무역 77-81)교수가 번역한 이 책은 개념 및 이론, 정책적 의미를 풍부하게 담은 사례를 제공하여 현실에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파이에듀케이션코리아·값33,000원)

워싱턴 주에 부는

변화의 물결

—李尙洙 지음



미국과 과학기술문화의 李尙洙(영대 83-85 중신대 겸임교수)국정교과 2국장이 미국 워싱턴 주에서의 연수 생활을 담은 책. 지난 2004년 5월부터 1년간

공연

金在美피아노독주회

—9월 22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金在美(가약 84-88 전국대 교수)동문(사전)이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건반으로 느끼는 가을 낭만'을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음악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과 깊이 있는 몰입으로 청중을 이끄는 여가는 금동문의 연주 실력을 음미해 볼 만하다. (공연문의: 음연 3436-5929)

金有美·吳惠淑연주회

—9월 26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金有美(가약 84-88 동덕여대 교수)동문과 첼리스트 吳惠淑(가약 71-75 수원대 교수)동문이 서울 금호로 금호아트홀에서 듀오연주회를 열고 라벤, 드뷔시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예에예술기획 586-0945)

미국 워싱턴 주정부(인사부)에서 직무연수를 하면서 직접 체험했던 현지의 혁신 내용과 미국인들의 생활모습 등을 소개했다. (교우사·값12,000원)

제임스 조이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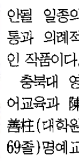
'율리시즈'의 서술전략

—陳善柱 지음

아일랜드 출신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는 20세기 문학에서 가장 유력하고도 도전적인 작가로,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율리시즈'는 현대문학의 이해에 빠져서는



서 조이스가 독창적인 기법과 개체에 힘을 쏟은 이유와 그 과정에 사부터 작품에 이용된 갖가지 서술 전략의 실상에 이르기까지 짚어볼 수 있게 밝히고 있다. (도서출판동인·값15,000원)



인텔 일종의 통과 의학적 작품이다. 충북대 영어교육과 陳善柱(대학원 69학)영대교수 이 책에

장학빌딩 건립기금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 △임광수 (기계공학48-52)
- ◆15억원
- △신명규 (생물교육54줄)
- ◆10억원
- △곽영필 (토목공학56-60)
- △김상하 (정치학45-49)
- △김은중 (경제학50-63)
- △김중섭 (사회사업66-70)
- △김형주 (토목공학46-50)
- △오동영 (조선항공54인)
- 김찬숙 (치의학56-60)
- △정계명 (상학61-66)
- △홍성대 (수학57-63)
- ◆2억원
- △김진호 (의학48-52)
- ◆1억원
- △김문현 (상학58-64)
- △김정철 (건축52-56)
- 김정식 (건축54-58)
- △나공목 (상학56-61)
- △노인환 (경제학54-58)
- 최한영화 (가정교육60줄)
- △맹태원 (기계공학46-50)
- △박상삼 (AIC 97)
- △박희백 (의학51-57)
- △서정화 (법학51-55)
- △최오영현 (섬유공학7-71)
- △오홍조 (치의학56-61)
- △유인성 (기계공학58-62)
- △유상부 (토목공학60-64)
- △이금기 (약학55-59)
- △이수범 (행정학56-60)
- △이예식 (약학46-49)
- △이준행 (섬유공학48-54)
- △이지호 (의학77-83)
- △이해원 (행정학51-55)
- △장준환 (의학69-76)
- △전동용 (수의학52-56)
- △정윤환 (임학56-62)
- △정중시 (화학공학72-76)
- △조병우 (섬유공학50-64)
- △최두형 (행정학51-55)
- △최상홍 (기계공학58-63)
- △최희장 (섬유공학58-64)
- △SNUA웨딩플래닝센터
- ◆6천만원
- △염병윤 (의학교60-64)
- ◆5천만원
- △공대식 (기계공학56-60)
- △김종현 (경제학55-59)
- △마국철 (공업교육68-72)
- △안 훈 (수의학53-57)
- △유재복 (법학50-54)
- △이승준 (섬유공학56-60)
- 이정원 (자원공학67줄)

△이재원 (상학55-59)

- △이종대 (전문기상학69줄)
- △이종원 (경제학50-65)
- △정재봉 (사회사업66-70)
- △지창수 (상학55-59)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 그랑자학회
- △일산회 :
- 김진의 (축산학59-65)
- △한우리SJIM
- ◆3천만원
- △남정현 (건축학57-61)
- △박종일 (영어교육60-64)
- △유석숙 (무역학61-65)
- 박영희 (기약70줄)
- ◆2천만원
- △김원일 (건축학61-65)
- 최미혜 (상학66-70)
- △김재백 (약학52-56)
- ◆1천5백만원
- △김철순 (조경학76-83)
- ◆1천1백만원
- △정해남 (법학72-76)
- ◆1천80만원
- △시명대 (의학54-60)
- △조대규 (약학58-62)
- ◆1천만원
- △강용원 (법학71-78)
- △강학순 (기계공학64-69)
- △강행원 (토목공학61-65)
- △관동은 (AIP 47)
- △권혁용 (불어불문50-63)
- △김기춘 (법학58-62)
- △김백순 (수학62-66)
- △김신상 (중어중문84-88)
- △김연호 (화학공학71-75)
- △김영갑 (법학74-78)
- △김윤종 (약학64-71)
- △김윤택 (경대원68-70)
- △김중서 (경제학58-63)
- △김주환 (토목공학57-61)
- △김진규 (법학61-66)
- △문대원 (경영학71-75)
- △문성준 (식품공학86-92)
- △박명환 (영어교육61-65)
- △박준우 (의학75-81)
- △박진희 (무역학70-80)
- △박창우 (경제학80-84)
- △백사익 (행정학80-84)
- △변상현 (의학51-57)
- △성백천 (토목공학52-56)
- △송병호 (경대원59-65)
- △신만호 (경제학67-71)
- △신윤식 (사학55-59)
- △심이택 (화학공학57-63)
- △양배덕 (전기공학57-61)
- △오용성 (임학60-66)
- △유세규 (경제학54-51)
- △윤영서 (경제학58-64)

△유희진 (축산학63-67)

- △이강수 (상학51-55)
- △이경호 (행정학61-65)
- △이병재 (경대원69줄)
- △이병철 (화학67-71)
- △이영필 (항공공학66-71)
- △이재우 (법학58-62)
- △이진규 (치의학78-84)
- △이창기 (약학55-59)
- △이형하 (법학74-78)
- △장무환 (경제학45-51)
- △장지준 (의학70-77)
- △조길동 (HPM 147)
- △조정훈 (자원공학75-81)
- △최남해 (상학52-56)
- △최진정 (사회교육75-79)
- △최승철 (기계공학66-70)
- △최정길 (금속공학52-56)
- △최영기 (정치학44-48)
- △최성길 (경제학60-64)
- △황경로 (AMP 11기)
- ◆5백만원
- △이현구 (AMP 52기)
- ◆3백만원
- △김진식 (법학50-58)
- △김영수 (법학60-64)
- △하재규 (농학53-57)
- ◆2백만원
- △이동수 (건축학61-66)
- △이종순 (법학57-61)
- △한규진 (AMP 42기)
- △허영호 (전자공학71-75)
- ◆1백20만원
- △나병호 (의학76-83)
- △이준형 (GLP 11기)
- △원우원 (행정학61-65)
- △이재자 (국어국문50줄)
- ◆1백10만원
- △원우원 (행정학61-65)
- △이재자 (국어국문50줄)
- ◆1백만원
- △강영택 (상학51-55)
- △강종표 (외교학76-83)
- △강홍섭 (화학공학59-63)
- △고 건 (정치학56-60)
- △고병우 (경제학52-56)
- △권광중 (법학61-65)
- △권이혁 (의학41-47)
- △김교성 (전기공학51-55)
- △김규복 (법학69-73)
- △김덕원 (수의학54-58)
- △김동찬 (생물교육51-55)
- △김방원 (상학52-56)
- △김영기 (법학54-58)
- △김영수 (경제학58-62)
- △김영재 (법학57-62)
- △김문재 (상학54-58)
- △김익모 (AIP 23기)
- △김민준 (법학56-60)
- △김재철 (경성학원39줄)
- △김정일 (금속공학58-64)

△김주용 (전기공학58-63)

- △김지호 (화학공학55-59)
- △김진여 (법학55-60)
- △김진우 (약학54-58)
- △김태현 (제약학71-75)
- △김형기 (불어교육72-76)
- △김홍중 (수학74-78)
- △문일환 (치의학65-71)
- △문창국 (정치학68-72)
- △박석훈 (불어불문63-67)
- △박성숙 (의학65-71)
- △박성철 (법학75-79)
- △박준원 (치의학66-72)
- △박승규 (조선항공63-67)
- △박영원 (지리학74줄)
- △박정환 (물리학61-66)
- △박준서 (법학58-64)
- △박태원 (정치학46-50)
- △배기선 (AMP 25기)
- △서준형 (물리학67-71)
- △심정훈 (법학70-74)
- △안기득 (전자공학76-80)
- △오복동 (법학57-63)
- △오태환 (법학53-57)
- △윤용환 (독어교육60-64)
- △윤원진 (HPM 67)
- △이경재 (화학59-63)
- △이광진 (법학77-81)
- △이근수 (신대원69줄)
- △이기준 (화학공학57-61)
- △이근우 (의학65-69)
- △이두환 (행정학74줄)
- △이병목 (의학54-60)
- △이호준 (AIP 32기)
- △이용우 (공업교육64-68)
- △이인혁 (섬유공학54-58)
- △이일훈 (상학55-60)
- △이정복 (응용미술62-66)
- △이주환 (역사교육53-57)
- △이준환 (의학51-57)
- △이창호 (기계공학55-61)
- △이철주 (상학59-65)
- △이학수 (화학54-58)
- △이호인 (응용화학66-70)
- △정성진 (섬유공학49-55)
- △장재철 (상학69-73)
- △전병원 (영어교육66-73)
- △전필근 (영어교육47-52)
- △정명환 (행정학65-67)
- △정명희 (의학65-71)
- △정민식 (임학59-63)
- △정병일 (독어독문78줄)
- △정병태 (정치학49-53)
- △정상조 (행정학57-62)
- △정영재 (수의학56-60)
- △정정길 (행정학61-65)
- △정주자 (법학61-65)
- △정홍숙 (가정교육59-63)
- △정희준 (법학57-61)



- △조무재 (사대원65-67)
- △조병환 (섬유공학59-65)
- △조원규 (생물학48-52)
- △지철근 (전기공학45-51)
- △진영준 (토목공학67-74)
- △진홍일 (외교학62-66)
- △최동식 (법학76-80)
- △최병재 (상학48인)
- △최정환 (물리학52-56)
- △최정훈 (의학77-83)
- △홍성원 (토목공학62-66)
- △홍순겸 (AIP 5기)
- ◆60만원
- △여인철 (조선공학75-79)
- (이상 2005년 10월 1일 ~ 2006년 8월 25일 출연해 주신 분)
- ◆50만원
- △박남준 (외교학68-75)
- △이준배 (의학85-89)
- △정영일 (치의학64-70)
- △정희수 (AMP 45기)
- ◆40만원
- △김정우 (축산학68-75)
- ◆30만원
- △박동우 (농공학70-74)
- △신부귀 (농화학63-67)
- △이상준 (법학78-85)
- △임유림 (국제경제84-88)
- ◆20만원
- △김정현 (농경제학69-76)
- △김동욱 (임학71-77)

- △이경국 (농학78-82)
- △이승훈 (법학80-84)
- △홍중용 (사회학55-72)
- ◆15만원
- △홍기갑 (행정학66-70)
- ◆12만원
- △최근수 (법학81-85)
- ◆10만원
- △고정환 (법학54-58)
- △김성철 (공업화학73-79)
- △김영일 (지리학62-68)
- △김정기 (농학56-61)
- △류준호 (경제학79-83)
- △박훈기 (경영학81-86)
- △서상수 (법학86-84)
- △송승주 (체육교육67-71)
- △신덕철 (기계공학68-72)
- △신종재 (조선공학73-77)
- △안동진 (법학56-62)
- △이미숙 (사법학84-88)
- △이계운 (교육행정53-57)
- △이상원 (법학80-84)
- △정원용 (치의학62-58)
- △조동주 (법학53-57)
- △최상준 (화학공학71-75)
- △한도형 (무역학69-73)
- △한동수 (의학59-65)
- △한인교 (의학66-72)
- △하인호 (법학64-68)
- (이상 2006년 7월 25일 ~ 8월 25일 출연해주신 분)
-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은 지면 관계로 다음호에 게재 합니다.